

예술가의 초상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7

05

유럽 박물관 기행

바이에른의 보석 문헌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오페라 연출가 이익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

메리 위도우, 화려한 싱글의 반란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





본 공연은 관객들이
출연진과 함께 악기연주를 하는
체험형 공연으로
1인당 악기 1대가 지급됩니다!

당신의 심장을 울릴

drumstruck

드럼스트럭

2018. 5. 5 (토) 오후2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드럼스트럭

입장권 : 3만원, 2만원, 1만원

입장연령 : 5세 이상

파이어로보

입장권 : 2만원, 1만원

입장연령 : 24개월 이상(1인 1티켓)

* 5월 5일 두 공연 동시 구매시 40% 할인

예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주최 : 금정문화회관 문의 : 051) 519-5661~3



2018. 5. 5(토) 오전 11시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제6회 **BNK** 부산은행



행복한 음악캠프

참가자 모집

BNK부산은행이 젊은 예술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자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함께 4박5일간 캠프비용 전액후원하여 제6회 BNK행복한 음악캠프를 개최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 인원** 70여명 (현악, 관악, 타악)
- 지원 자격** 음악전공자로서 만16세(2002년생)이상 29세(1989년생)이하 누구나 가능
- 참가 접수**
- ① 기간 : 2018. 5. 9(수) ~ 6. 9(토)
 - ② 접수 방법 :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 (www.happybnk.c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
 - ③ 참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선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발시 우대)
(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첨부서류는 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비용 전액 무료

- 오디션**
- ① 오디션 곡목 : 자유곡 1곡 (빠른 악장)
 - ② 오디션 방법 : 신청서 전원 3분 이상 연주 동영상 파일로 오디션 진행
 - ③ 접수 기간 : 2018. 6. 11(월) ~ 6. 16(토)
 - ④ 접수 방법 :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
 - ⑤ 결과 발표 : 2018. 6. 28(목) /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발표
- 문의처**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T. 051-661-4831)
※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프안내

- 캠프 기간** 2018. 7. 16(월) ~ 7. 20(금)
- 캠프 장소**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 교과 내용**
- 유명 교수진의 전공별 앙상블 지도 및 개인 실기 지도
 - 오케스트라 발체곡 지도,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 지도
 - 지도교수 특별 및 합동 연주

캠프특징

- 참가자 전원 수료연주회 참가
- 일시 : 2018. 7. 20(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문현동 소재)
 - 입장료 : 무료
 - 입장권 신청 : 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www.happybnk.co.kr)

교수진

 <p>예술감독 오승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음악원 졸업 고신대학교 교수, KNN 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역임 現 부산시포니오케스트라, 부산필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관악지도교수 이정생 서울대학교, 미국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비올라 박주연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現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시포니오케스트라 수석 SOLA 챔버 단장</p>	 <p>오보에 조정현 독일 뮌헨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향악과정 수료 現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세종대 겸임교수 건국대, 인제대, 계명대 외래교수</p>	 <p>홍민 김용박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대학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서울시향 부수석, 스페인 왕립오페라 제2수석 역임 現 한양대학교 교수, 노르웨이 오슬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p>
 <p>바이올린 백재진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 비안국립음대 졸업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現 동덕여자대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p>	 <p>첼로 송희승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 비안국립음대 수석 졸업 現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음악감독</p>	 <p>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관현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現 레지티비앙상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p>	 <p>플루트 장재혁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 학사 졸업 체코 브루노음악원 지휘과 연주,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부산대영남대인제대 외래교수</p>	 <p>트롬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러시아 그나신 국립음대 및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시립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現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p>
 <p>바이올린 이경선 서울대학교, 미국 피버디 음대 대학원 석사&Artist Diploma 졸업 미국 줄리아드 Professional Studies 졸업 現 서울대학교 교수, 창원국제사내악차서솔 비르투오조그룹 음악감독</p>	 <p>첼로 이일세 오스트리아 비안국립음대 학사 최우수 졸업 비인 프리나음악원 교수, 유라시안 필하모닉 수석 역임 現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p>	 <p>바이올린 장재혁 독원대학교 졸업, 이탈리아 나노르타 음악원 졸업 체코 브루노음악원 지휘과 연주,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KCO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 객원수석</p>	 <p>비올라 윤상현 서울대학교 졸업, 이탈리아 나노르타 음악원 졸업 체코 브루노음악원 지휘과 연주,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p>	 <p>트롬본 김우석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 졸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관악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現 서경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안고운 서울대학교 재학중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現 경희대학교 교수</p>	 <p>베이스 김향호 서울대학교, 미국 줄리아드 비안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한국예술종합학교-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p>	 <p>비올라 오신정 서울대학교, 미국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 KBS교향악단 부수석역임, Powell Flute Artist 現 인제대학교 교수</p>	 <p>비올라 최영진 서울대학교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독일 뒤셀도르프 챔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p>	 <p>튜바 김남호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 오케스트라 외래교수 아카데미 브라시 엠버</p>
 <p>비올라 위찬주 독일 뷔르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인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비엔나 방송교향악단 준연원, 독일 뉘른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 역임 現 한양대학교 교수, KCO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수석</p>	 <p>오보에 이윤정 서울대학교, 미국 줄리아드 석사 졸업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現 경희대학교 교수, 금호챔버뮤지크사이티 멤버</p>	 <p>호른 이석준 부산대학교,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독일 뒤셀도르프 챔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p>	 <p>타악기 박광서 오스트리아 비안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現 서울국제타악(메소타입) 음악감독</p>	 <p>부지휘자 다니엘김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졸업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역임 現 부산시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p>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세계의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8. 5. 16 | 수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 연 박은주 (소프라노) 백재은 (메조 소프라노)

김충희 (테너) 한규원 (바리톤)

특별출연 용마합창단



주 최 | 문 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051) 637-0125

후 원 **BNK** 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 본 공연은 '2018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으로 음악회 지정후원금과 출연인 재능기부로 개최합니다.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재개관 기념 첫 번째 기획공연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 I

말러, 다시 태어나다



Richard Wagner
리하르트 바그너

Rienzi Overture
리엔치 서곡

Gustav Mahler
구스타프 말러

Symphony No.1 "Titan"
교향곡 제1번 "거인"



예술감독 | 김원명



지휘 | 임성혁

2018. 5.18.(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 (BRPO)
대표 | 김일택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을숙도문화회관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 문의 | 051)220-5812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기획 | 이성섭 | 무대감독 | 이순재 | 조명감독 | 박병주 | 음향감독 | 서종철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8년 5월호 통권 317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0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5월 공연캘린더

14 BACKSTAGE OPERA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메리 위도우, 화려한 싱글의 반란’

16 MUSEUM OF EUROPE

바이에른의 보석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20 OUR CULTURE PLACE

새롭게 문을 여는
부산시민회관 아트숍, 갤러리 창



22 TRAVEL WITH YOU
복사꽃 피는 청도 봄 여행

28 PREVIEW

36 ISSUE
제3회 예인예술제
2018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40 REVIEW

44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58 SNS SUPPORTERS
SNS 서포터즈 관람기

59 BOOK
새로 나온 책

60 BSCC NEWS
부산문화회관 소식

커버스토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유키 구라모토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1999년 첫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유키 구라모토는 그동안 작은 꽃, 무심히 지나치는 풍경,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형식과 선율이 그려내는 투명하고 청명한 음악적 정서로 음악을 통한 자기 휴식, 감정의 정화를 관객들에게 선사해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Beautiful Memories





그의 음악은 마치
인상주의 회화 같다.

최규용(재즈칼럼니스트, '재즈' 저자)

유기 구라모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흘뻐려진 감성의 건반이다.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도
감성의 울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메마른 사람일 것이다.
그의 피아노에는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인
연주가 모두 들어있다.

아트&컬처

가슴 저미는
동양적 서정미의 극치,
슬프고도 아름다운
피아노의 시인

C&L 뮤직



5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00

1951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기 구라모토는 어린 시절, 피아노 연주를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학창시절에는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일본의 명문 도쿄공업대학에 진학해 응용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던 유기 구라모토는 응용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자와 음악가로서의 선택의 기로에서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1986년 발표한 첫 피아노 솔로앨범인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에 수록된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유기 구라모토는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Refinement 리파인먼트'를 발표,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음반 발매 이외에도 아사히TV의 '호텔', NHK의 '한번 더 키스' 등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케이블TV, 레이저 디스크 등의 영상음악과 항공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에 그의 음악이 사용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2004년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2006년 6월, 일본 음반 데뷔 20주년 전국 투어를 펼치기도 했던 유기 구라모토는 201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에 도전, 일본 창작뮤지컬 '폭풍의 언덕' 전곡을 작곡, 그의 음악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킨 바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정식으로 음반이 수입되면서 음악 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 뉴에이지 음악의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에게도 그의 이름은 친숙해졌다. 특히 그의 음악이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영화 '달콤한 인생', '우리 형'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유기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서울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3월과 11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0주년을, 2014년 3월과 10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기 구라모토는 지난 2015년 9월, 첫 음반인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 기념공연에 이어 2016년에는 화성을 시작으로 하남, 진주, 여수, 목포, 울주까지 지역의 음악팬들을 위한 총 여섯 차례의 투어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뷰티풀 메모리즈(Beautiful Memories)'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유기 구라모토는 조용하고 나직한 서정적 선율로 아름다운 추억들을 돌아본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나 힘들던 시절에 쓴 희망을 담은 멜로디, 혹은 극의 흐름을 이어가는 드라마 OST 등 곡을 쓴 배경은 다르지만, 그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Romance, Lake Louise, Warm Affection 외 유기 구라모토 베스트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

2018 MAY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회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
시
실

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대전
5월 12일(토)-5월 14(월)
한국추사서예가협회(010-3860-9958)

제36회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미술대상전
5월 18일(금)-5월 20일(일)
(사)전국서화예술인협회(010-6269-7456)

제15회 부산서예전람회
5월 24일(목)-5월 26일(토)
(사)한국서가협회 부산지회(759-8858)

제22회 ASIA미술대전
5월 28일(월)-5월 31일(목)
(사)AISA미술연구회(010-3592-6990)

1

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창단연주회 19:30
첼 전석 1만원/BCMS(010-3846-7142)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7

8

금잔디가 선사하는 어버이날孝心콘서트 18:00
대 8만8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
SR엔터테인먼트(1522-3286)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극 '정과정' 15:00
중 전석 2만원/극단 바문사(554-8209)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대 2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3074-0366)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14

15

제2회 서영교 색소폰 독주회 15:30
첼 전석 1만원/서영교(010-6886-5896)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 공연 '화려한 만남 II' 19:30
대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WIN CLASS CONCERT 14:00
중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주)중앙컬처스클럽(02-6351-3005)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21

22

피아니스트 윤지영과 함께하는
봄날의 피아노 14:00, 19:00
중 초대/윤지영(010-3846-227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성주와 올리버 케른의 로맨틱 소나타 17:00
첼 전석 3만원/(주)스테이지원(02-780-5054)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28

29

제3회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13:00, 18:00
중 무료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010-2889-0655)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예술가곡 4주년 연주회 18:30
중 전석 1만원
부산예술가곡(010-3884-4623)

국악 퓨전그룹 페르시아인 블루 초창콘서트 19:30
중 3만원 · 2만원/부산문화(1600-1803)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WED	THU	FRI	SAT
<p>2</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부산시립극단 2018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 11:00, 13:00, 14:30, 15:30, 16:30 [전] 전석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음악회 '꾸러기 음악회' 14: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극단 2018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 11:00, 13:00, 14:30, 15:30, 16:30 [전] 전석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9</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0</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Hi Estonia' 19:30 [중]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1</p> <p>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공연 19:30 [대] 초대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513-7772)</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2</p> <p>제5회 앙상블 A-ri 정기연주회 책 읽어주는 음악회 '가시고기' 17:00 [전] 전석 1만원/앙상블 A-ri(010-4482-1827)</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6</p> <p>제7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 초대/(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무지카비바 제28회 정기연주회 '탄생' 19:30 [중] 전석 2만원 무지카비바(010-9336-2687)</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 같은 이야기' 19:30 [대]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9</p> <p>뮤콜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전석 1만원/뮤콜합창단(010-2307-6922)</p> <p>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19:00 [중] 무료/김태건(010-3879-2487)</p> <p>부산음악사랑회 제12회 정기연주회 18:00 [전] 전석 1만원/부산음악사랑회(010-9692-3973)</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3</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5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 19:30 [대] 2만원 ·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5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p> <p>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오페라 읽어주는 여자' 19:30 [전] 전석 2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I' 11: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9:30 [대]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6</p> <p>파스텔_노리플라이&스탠딩에그 - 부산 19:00 [대] 전석 7만7천원 (주)컬쳐 팩토리(811-1045)</p> <p>La Brezza di Italia(이탈리아에서 오는 바람) 19:30 [전] 5만원 · 1만원/고신대학교(990-2231)</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0</p> <p>부산국악작곡가회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부산국악작곡가회(010-8523-2942)</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1</p> <p>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댄스유포피아'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악 초청연주회 19:00 [중] 무료/강림문화재단(637-5670, 527-0288)</p> <p>손은혜, 김은정 듀오 리사이틀 19:30 [전] 전석 1만원/김은정(010-2802-1672)</p> <p>(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05

2018 MAY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전시실</p> <p>민화는 우리의 삶, 꿈, 복이다 4월 29일(일)-5월 5일(토) 1층 전시실 전정혜 010-4703-2205</p> <p>동백수석회展 5월 7일(월)-5월 13일(일) 1, 2층 전시실 안성봉 010-8924-3994</p> <p>부산연묵서화전 5월 14일(월)-5월 19일(토) 1층 전시실 강귀모 010-2551-7819</p>	<p>한·중·일 아동우호그림전 5월 14일(월)-5월 31일(목) 2층 전시실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666-7936</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22일(화)-5월 26일(토) 1층 전시실 부산사진협회 631-4111</p>	<p>1</p>
<p>6</p> <p>2018 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대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7</p> <p>부모님 초청 효 행사 15:00 소 초대/(주)사랑모아에셋(010-5760-3651)</p>	<p>8</p> <p>어버이날 행사 09:30 대 무료/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888-3264)</p>
<p>13</p> <p>제51회 미스터&미즈 피트니스 부산선발대회 10:00 대 전석 1만원 부산광역시 보디빌딩협회(500-7966)</p> <p>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1:00, 14:00 소 전석 2만원 H.O.W performing team(1577-4868)</p>	<p>14</p>	<p>15</p> <p>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열린콘서트 18:00 대 초대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338-5215)</p> <p>GREEN연예예술단 신곡발표 및 콘서트 13:00 소 무료 GREEN연예예술단(010-2528-4612)</p>
<p>20</p> <p>가족뮤지컬 '헬로키티의 세가지 선물' 11:00, 14:00 대 5만원 · 4만원 · 3만원 마당세실(02-583-2407)</p> <p>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14:00 소 5만원 · 4만원/(주)문화락(1600-1602)</p>	<p>21</p>	<p>22</p>
<p>27</p> <p>제46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 대 무료/신라대학교(999-5301)</p> <p>제46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 소 무료/신라대학교(999-5301)</p>	<p>28</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9</p> <p>토크콘서트 '동행콘서트' 13:00 대 초대/부산시교육청 인재교육과(02-360-4868)</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WED	THU	FRI	SAT
<p>2</p>	<p>3</p>	<p>4</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레이디굿맨' 12:20 [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5</p> <p>2018 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16:00 [대]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9</p> <p>한국건강대학 개교 8주년 기념공연 14:00 [대] 초대/(사)한국건강대학(607-0075)</p>	<p>10</p> <p>보육교사! 그대가 빛나는 밤에 18:00 [대] 전석 2만원 부산시간간어린이집연합회(010-6322-1500)</p>	<p>11</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팝페라 휴' 12:20 [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12</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최백호의 청춘콘서트 회귀:回歸' 14:00, 18:00 [대] 9만원 · 6만원 ·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1:00, 14:00 [소] 전석 2만원 H.O.W performing team(1577-4868)</p>
<p>16</p> <p>최봉선과 벗님들의 통기타와 하모니카의 선율 속으로 19:00 [소] 무료/최봉선(010-3993-2322)</p>	<p>17</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마법의 클래식 이야기' 19:30 [대] 1만원 ·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18</p> <p>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19:30 [소] 5만원 · 4만원/(주)문화락(1600-1602)</p>	<p>19</p> <p>가족뮤지컬 '헬로키티의 세가지 선물' 11:00, 14:00, 16:00 [대] 5만원 · 4만원 · 3만원 마당세설(02-583-2407)</p> <p>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15:00, 18:00 [소] 5만원 · 4만원/(주)문화락(1600-1602)</p>
<p>23</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4</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5</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차문화축제' 16:00 [소] 무료/부산차문화진흥회(809-1551)</p>	<p>26</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예술제' 17:00 [대] 무료/부산무용협회(632-5116)</p>
<p>3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상영회 '모아나' 14:00 [대]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31</p> <p>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메리 위도우, 화려한 싱글의 반란

한국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가지는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부정적 선입견으로, 레하르의 오페레타 '명량한 과부'는 뮤지컬만큼 흥미롭고 경쾌하며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현저히 드물게 공연된다.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데 제목에서 주는 그 힘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지난 2016년 12월, 나는 수원시립예술단의 요청을 받고 수원 SK아트 리움에서 이 작품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나간 슬픔은 가슴에 새기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즉, 과거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새로운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는 것이다.

사랑의 추억에 사로잡힌 한나-다닐로 커플과 미래를 꿈꿔보는 발렌 시앵-카미유 커플의 복잡 미묘하면서도 유쾌한 스토리는 흥겨운 댄스와 유려한 음악의 바이올린 선율 속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다. 특히 다닐로와 한나의 왈츠풍의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지만(Lippen schweigen)'은 너무나 잘 알려진 듀엣곡으로, 우리 노래 '똥년이 왔네~'와 똑같은 멜로디로 정말 많이 들어본 선율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이 부분을 들을 때 마다 유치하지만 "푸~~옹년이 와~~왔네..."하면서 흥얼거린 기억이 난다. 또한 "여자, 여자, 여자, 여자..."하면서 부르는 남성 중창의 재밌는 하모니도 볼거리 중 하나인 이 작품을 나는 그 해 처음 연출하게 된 것이다.

제목에 관한 나의 생각을 더 멋지게 쓴 글이 있는데, 이용숙의 저서 <클래식 명곡 명연주>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자면, "프란츠 레하르(Franz Lehár, 1870-1948)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는 유럽 대륙과 미 대륙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빈 오페레타 최고의 걸작입니다. 원작은 독일어지만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독일어 원제 '디 루스티게 비트베(Die lustige Witwe)'보다는 '메리 위도우(The Merry Widow)'라는 영어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유쾌한 미망인' 또는 '즐거운 과부' 등으로 번역하는데요, 사실 '미망인(未亡人)'이라는 말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인데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과부(寡婦)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자어라도 '과부'보다는 '미망인'이 웬지 품위있게 들리지만,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남에게 '미망인'이라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레타는 이런 저런 고민을 거친 끝에 '메리 위도우'로 통용되는 듯합니다..."라는 글처럼 이전의 잘못된 번역을 고쳐 문화적 차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발칸반도의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국가인 폰테베드로의 파리대사관에서 벌어지는 파티가 배경이다. 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국가로,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로서 인구



가 68만 명이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어 오늘날에도 '21세기의 중세국가'로 불리는 몬테네그로를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이 파티의 모든 남자들의 관심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한나로 향하고 있다. 그녀는 일찌감치 섹시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은행가였던 남편이 남긴 유산을 받은 '화려한 돌싱'으로서 모든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돈을 보고 탐비는 남자들의 애절한 손짓을 비웃으며 거절한다. 그런데 바티칸처럼 작은 나라인 폰테베드로의 제타 대사는 한나가 파리에서 파리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녀의 유산이 해외로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의 옛 애인 다닐로를 이용하여 그녀의 재산이 폰테베드로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시도한다. 사실 다닐로와 한나는 한때 연인이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다닐로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한나가 나이 많은 은행가와 결혼해 버린 것이다. 이에 좌절한 다닐로는 매일 밤 여자들이 나오는 카페 '막심 Maxim'(우리에게 커피명으로 유명한 바로 그곳 그 이름)에 출입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다닐로는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그녀가 있고, 또 그녀 역시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야기는 두 사람간의 소위 '밀당'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끝에 한나는 '재혼을 하는 순간 나에게 상속된 재산은 사라진다고 남편의 유서에 적혀 있다고 말하자 수많은 남자들이 한나에 대한 청혼을 포기한다. 그때 다닐로는 한나가 무일푼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신이 나서 한나에게 '그대, 나 사랑하오!'라고 외친다. 돈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자 한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데 그 사라진 재산은 새 남편의 것이 된다는군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모두가 "여자는 참 어려워"라고 유쾌하게 외치고, 마침내 단들이 남은 한나와 다닐로는 드디어 왈츠 선율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한다. "입술은 침묵해도 바이올린은 속삭여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스텝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따라 춤추죠, 그대를 사랑해요..."로 막을 내린다. 더 할 나위없는 해피~해피 엔딩이다.

나는 이 작품을 우리말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번역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독일어를 우리말처럼 자유자재로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 나의 언어 스타일로 새로 가사를 만들어 구성했다. 그해 여름 한 달 내내 가사 작업에 매달리면서 이 작품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번역작업이 끝나니 그때부터가 다시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다. 뮤지컬에 가까운 춤과 음악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최고의 현대무용가를 투입하여 새로운 안무를 기대했지만, 아! 오페라 경험이 없는 안무가는 캐스트와 합창을 비롯해 60여 명을 이끌어가는 것을 버거워했다. 즉각



적인 춤이 나와야 하는 이 작품에 의미와 몸짓의 탐구와 연구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의 안무가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것은 안무가를 교체하는 것이었다. 공연을 열흘도 안 남기고 그런 모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내가 몇 년 전 tvN의 '오페라 스타'라는 프로그램의 무대 총연출을 맡아 일할 때 알게 된 즉흥 댄스 안무로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안무가에게 도움을 구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먼저 일했던 선임 안무자는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아울러 구원투수로 나선 그도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 주었다. 나는 수십 편의 작품, 수백 번의 공연을 만든 연출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 속에 작업을 해나갔지만, 그때의 결정은 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금 느끼게 된, 가장 중요한 퍼즐의 조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지휘자, 캐스트, 합창단, 오케스트라, 각 분야의 디자이너, 안무자, 기획 프로덕션과 연출 스태프들 모두 합심하여 무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작고하신 이탈리아인 내 스승의 가르침처럼 연출가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작품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화려한 싱글들이 모여 힘을 합쳐 한 쌍을 이루고, 그 한 쌍 한 쌍들이 더 나아가 우리를 만들며 더 큰 즐거운 세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Alte
Pinakothek

바이에른의 보석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유럽을 여행하면 어느 나라나 크고 작은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역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10년간 살았던 이탈리아도 북부와 남부간의 지역감정이 심각한 편이었는데(이탈리아는 AD476 이후 약 1,400년 가까이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북부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밀라노 사람, 베네치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남부지역 도시들과 같은 나라인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도시마다 도시의 대표 문자가 있다. 예를 들면 로마는 RM, 밀라노는 MI, 베네치아는 VE로 표기된다. 남부의 나폴리는 NA로 표기되는데 북부 사람들은 NA를 보면 나폴리라고 말하지 않고 North Africa, 즉 북아프리카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한다.

글·사진 김성민 (주유료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알테 피나코테크 전경

독일지역 역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신성 로마제국이라는 느슨한 연맹체로 지냈으니 지역 색채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지역을 꼽자면 독일 동남쪽에 위치한 바이에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뮌헨이라는 도시가 중심인 이 지역은 북방 게르만족인 바바리(Bavarii)족이 자리 잡았던 곳이라 바이에른 주라고 불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알프스 산맥을 등지고 형성되어 있기에 척박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BMW, 아우디를 비롯해서 알리안츠, 아디다스, 오슬람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발전했다. 또한 가을에는 '옥토버페스트(Okttoberfest)'라는 맥주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가장 맥주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부심도 매우 강한 편인데 자신들을 독일 사람이 아니라 바이에른 사람이며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 아니라 뮌헨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독일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곳을 소개하자면 주저 없이 바이에른 지방의 뮌헨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가 뮌헨 근처에 있으니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추천한다.

바이에른의 맥주 비텔스바흐(Wittelsbach) 왕가의 미술관

전통적으로 바이에른 지역은 12세기부터 비텔스바흐 가문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오늘날 뮌헨 대부분의 역사 건축물들은 비텔스바흐 가문의 루드비히 1세(재위 1825~1848)에 의해 완성되었다. 루드비히 1세는 뮌헨을 북방의 아테네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소개하는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고 미술관) 역시 1826년 루드비히 1세의 명령으로 건축자 레오 폰 클렌체(Leo von Klenze)에 의해 건축이 시작되었다. 1836년 10월 대중에게 이곳이 공개되었는데 이후 효과적인 전시를 목적으로 이곳에서는 13세기에서 18세기 회화 작품 약 700점을 전시하고 근처에다 노이에 피나코테크(Neue Pinakothek)를 건설하여 현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988년 4월, 한 정신이상자는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알브레히트 뒤러의 <파움가르트너 제단화>에 염산 테러를 하게 된다. 순식간에 물감이 녹아내렸고 이후 뮌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림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술관으로 개조시켰다. 지금은 80여 개의 CCTV와 함께 최첨단 시스템 속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티치아노 등 500년 전 천재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오랜만에 파란 하늘의 뮌헨



뮌헨은 맥주의 지역답게 맥주 관련 축제가 많다.
(2016년 맥주순수령 500주년 행사)

독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자화상

16세기 유럽은 참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독일의 종교개혁은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지역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는 두 사건의 한가운데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독일 최초로 이탈리아식 르네상스 회화를 북유럽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며, 르네상스 회화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에서 그림으로 당시 화가들과 경쟁을 펼쳤던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트 이전에 가장 많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던 화가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1500년 뒤러가 만 28세가 되었을 때 그렸던 이 자화상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화상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초상화를 그릴 때는 주로 45도 각도를 사용했는데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과감한 정면 구도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 정면 구도는 주로 왕이나 예수를 그릴 때만 통용되었는데 아마도 뒤러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창조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화가의 빛나는 눈과 손의 모습이다. 아마도 뒤러는 자신은 창문과 같이 빛나고 예리한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조주와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독일의 화가 뒤러는 그림뿐만 아니라 당시 스위스, 플랑드르, 이탈리아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살았던 국제적인 사람이었고 미술이론서와 다양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화가를 고발하려 했던 그는 아마도 미술사에서 최초로 저작권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뒤러의 다재다능함과 열린 사고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견되고 그의 온화한 성격과 사회성은 라파엘로를 연상시킨다. 또한 넘치는 자부심과 압도적인 실력은 동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 고향이 세상의 중심이며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뒤러는 당시 문화의 변방이라고 말하던 독일에서 태어났고 활동했던 화가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신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당시 베네치아 화가들과 그림으로 경쟁을 할 때 일부러 독일사람 뒤러라고 서명을 할 정도로 자신의 나라와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쳤으며 실력 또한 갖춘 사람이었다.

오늘날 바이에른 사람들은 독일의 중심은 수도 베를린이나 예전 서독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인 바이에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변방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은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런 바이에른 사람들의 가슴속을 관통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바이에른이 척박한 산악지역의 변방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전 다른 지역 공연장에서 “우리 지역 음악가들이 소프라노 조수미보다 사랑받는 날까지”라는 인상 깊은 문구를 보았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부산에서도 이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뒤러와 같은 예술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본다.



뒤러의 자화상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는
미술관 내부 모습



그곳에 가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새롭게 문을 연
부산시민회관 아트숍
갤러리 창(窓)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민회관이 최근 아트숍을 새롭게 단장하고 작은 규모의 전시공간인 '갤러리 창'을 개관하면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부산지역 작가들의 회화, 조각 작품에서
아트상품, 어린이도서까지 '부산시민회관 아트숍'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되면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민회관은 그동안 '유쾌한 문화놀이터'를 표방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펼쳐왔다. 그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야외광장무대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2018 시민뜨락축제' 개막에 맞춰 4월 6일, 아트숍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allery




소극장 1층 입구에 자리한 아트숍은 기존 막혀있던 공간을 터어 개방함으로써 전시공간의 답답함을 없애는 한편,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기존 아트숍이 도예가들이 제작한 도자기, 공예품 위주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다소 낮았던 점을 감안해 새롭게 단장한 이번 아트숍에서는 누구나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그림과 조각, 드로잉북, 그리고 액세서리, 보자기, 여행가방 등 아트상품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트숍 한쪽에는 지역 출판사에서 출간한 동화책과 미술 관련 서적 200여 권도 전시되고 있으며 여타 아트숍과는 달리 어린이 책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그동안 어린이 공연이 자주 열렸던 만큼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아트숍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민회관은 앞으로 소극장 로비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아트숍에는 부산의 대표적 독립 출판사인 '비온후와 독서공간'을 운영하며 주민과 어린이가 참여하는 책 읽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연제구 '책과 아이들', 오는 2020년 부산 서면에도 건립되는 'KT&G 상상마당', 부산청년디자이너업체 '그린그림', 그리고 올해 10월 부산시민회관과 함께 아트페어를 유치할 예정인 '화이트테이블' 등이 참여업체로 입점해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 이상수, 김성철, 이정선의 작품과 아트 상품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청년작가 지원사업을 위한 이색갤러리 '갤러리 창'

소극장 전면부 일부를 활용한 '갤러리 창'은 부산청년작가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된 2평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앞면과 뒷면이 유리로 시원하게 트여 있어 소극장 건물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입체적인 조각이나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데 제격이며, 벌써부터 지역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갤러리 개관전을 통해 만나는 첫 초대작가는 부산대학교 조소과 대학원에 다니는 이상원 씨로, 공간을 십분 활용한 조각·설치작품 'OBSESSION-강박관념'을 선보이고 있다. 앵무새 조각이 나무판에 앉아 있고 바닥에는 밧줄이 파리리를 틀고 수북이 쌓여있는 작품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본연의 울음소리와 색을 잃은 채 새장 속에서 살아가는 앵무새를 통해 우리 현실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갤러리 창'에서는 앞으로 소극장과 야외광장이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에게 상상과 판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 전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 www.bscc.or.kr



복사꽃 피는 청도 봄여행

지천에 흐드러진 봄꽃들로 꽃향기 가득했던 지난 4월 13일, 복사꽃 피는 '맑은 도시(淸道)' 청도에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4월이면 피어나는 분홍빛 복사꽃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는 청도는 봄이면 봄날의 흥취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는 '무릉도원' 청도로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로 아침부터 생기가 넘친다. 특히 이번 여행길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박은혜 씨, 김도은 씨가 동행하면서 복사꽃 아래에서 펼쳐질 단원들과의 만남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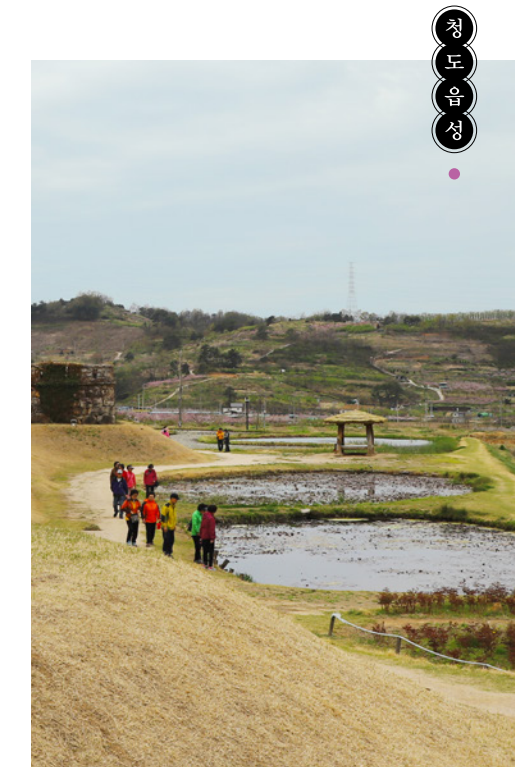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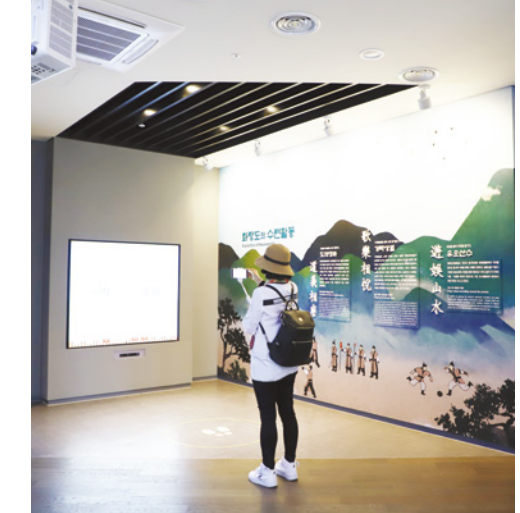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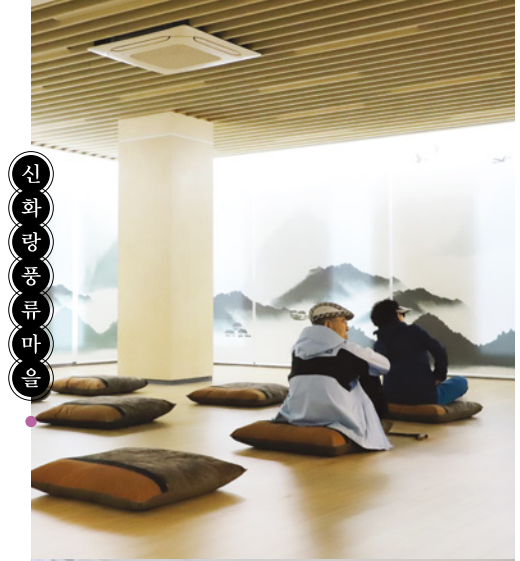


청도에서의 오전 일정은 청도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22일 개관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화랑도의 근본정신인 '세속오계의' 발상지인 청도를 널리 알리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역사에 발맞춰 화랑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체험공간이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종기 청도군 문화유산해설사와 본격적인 화랑체험에 나섰다. 우선 청도에서 발견된 화랑정신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돌아본 후 가상현실을 통해 검술 및 궁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화랑VR체험존에서 신나는 체험을 즐겼다. 마치 실제인 양 펼쳐지는 생생한 가상현실에 회원들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이어 명상과 피톤치드 삼림욕, 사운드·커러 테라피를 체험하는 힐링공간인 명상실에서 잠시 여유를 찾은 회원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청도읍성으로 자리를 옮긴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청도의 먹거리로 유명한 추어탕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운 정기회원들은 청도 역사여행의 출발지인 청도읍성으로 향했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청도읍성은 고려 말에 토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기록상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선조 24),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전국 읍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크게 고쳐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 개축과 소실을 반복해 오다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9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된 청도읍성에는 기존 동문인 봉일루와 북문인 공북루에 최근 복원이 완료된 무희루(서문)까지 3개의 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내년 2019년까지 모든 복원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청도읍성 입구에는 청도석빙고(보물 제323호)가 자리하고 있다. 숙종 39년(1713년)에 축조된 청도 석빙고는 경주, 안동, 창녕, 현풍 등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석빙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빙고다. 특히 청도 석빙고는 다른 지역의 석빙고와는 달리 봉토가 모두 유실되어 흉예만 남아있어 석빙고 내부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 청도읍성 인근에는 조선시대 청도군의 개사로 쓰였던 도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주관 입구에는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서구열강의 침입을 경고하고 쇄국정책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웠던 척화비 중 하나인 청도 척화비(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109호)가 서있다. 비 몸체의 앞면에는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인즉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우리 자손만대에 경계한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청도석빙고를 시작으로 회원가족들은 봉일루에서 공북루를 거쳐 무희루까지 청도읍성을 따라 돌며 그 옛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청도읍성에는 예



신화랑풍류마을

청도읍성

테마가 있는 여행

도
주
관



전부터 읍성을 한 바퀴 밟으면 건강해지고, 두 바퀴 밟으면 오래 살고, 세 바퀴 밟으면 극락왕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부녀자들이 읍성을 밟으며 열을 지어 도는 '청도읍성 밟기'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오던 이 행사는 지난 2009년 청도읍성 복원을 계기로 매년 3월, 열리고 있다.



오후 남은 일정을 위해 정기회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청도여행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딸기 따기 체험을 위해 신도정보화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신도정보화마을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유명한 곳으로, 인근에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마을 운동의 변천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주민의 안내로 직접 딸기따기에 나선 회원들은 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두 손이 빨개지도록 싱싱한 딸기 따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딸기 따기 체험까지 청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부산으로 떠나기 앞서 이번 여행에 동행했던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박은혜 씨, 김도는 씨로부터 '아리랑춤'을 배웠다. 처음 배워보는 전통 춤사위 동작 하나하나에 서툴지만 진지한 열정이 회원들의 얼굴에 묻어나온다.

활짝 핀 복사꽃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만개한 복사꽃만큼이나 아름다웠던 4월 청도 봄나들이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떠나는 봄 여행



6.8

삼국유사가 탄생된 천년고찰 인각사를 비롯해 신라 소지왕 15년(493년) 극달화상이 창건한 삼존석굴(제2석굴암), 돌담이 아름다운 한밤마을과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화본역으로 유명한 화본마을 등을 둘러본다.

일정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한밤마을, 군위석불 탐방
- 12:30 중식
- 13:00 인각사 탐방
- 14:00 화본마을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05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김강영(동래구 복천로) | 백영심(동래구 여고로) |
| 김상윤(남구 유엔평화로) | 이정남(남구 석포로) |
| 김은숙(남구 황령대로) | 정봉진(남구 황령대로) |
| 김희숙(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최경자(남구 유엔로) |
| 박정화(남구 동명로) | 최은정(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

기존 회원

- | | |
|----------------|-----------------|
|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 석종명(남구 진남로) |
|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 이두희(남구 진남로) |
| 김은희(연제구 월드컵대로) |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문혜경(부산진구 신천대로) | 정연경(부산진구 신천대로) |
| 박은진(해운대구 대천로) | 장정옥(금정구 서동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부산시립합창단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

더 팬텀 코러스

2018. 5.24 Thur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JTBC 팬텀싱어에서 소개된 최고의 명곡

Il libro dell' amore

꽃이 핀다

La vita

Caruso

달꽃

Musica

Danny boy

Dell' amore non si sa

나를 태워라

L'impossibile vivere

I surrender

Grande amore

어느봄날

Halo

Odissea

배웅

Luna

꽃

Look inside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Hi Estonia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번 무대에서는 2018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연단 해외파견 공모에서 공연단으로 최종 선정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14일 에스토니아 공연을 앞두고 'Hi Estonia'라는 주제로 마련한다. 특히 에스토니아에서 연주할 곡들을 선보이는 무대인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에스토니아 작곡가 벨조 포르미스의 'Modal Etudes'를 비롯해 아리랑 환타지, 한국민요모음, 장구춤 등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알리는 곡들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곡가 조성은의 가곡을 들려준다.

첫 무대는 아카펠라의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는 무대로 Javier Busto 곡 'Salve Regina' Edvard Grieg의 'Ave Maris Stella', Eesti hallilaul의 'Lullaby', Susanna Lindmark의 'Song of Hope'를 들려준다. 'Ave Maris Stella'는 마리아를 찬미하는 곡으로 9세기부터 불려온 노래이다. 'Song of Hope'는 어린이들의 희망과 평화를 노래하는 곡으로 아카펠라와 퍼쿠션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퍼쿠션 연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김영훈이 맡는다.

이어지는 무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들려주는 사랑과 감사의 노래로, '님의 노래', '어머니', '꽃잎이', '꽃구름 속에' 등 작곡가 조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 외교부 공연단 선정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Hi Estonia'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공연에
참가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12일 에스토니아 출국을 앞두고
제151회 정기연주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성은의 가곡들을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와 첼로, 플루트가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무대로 선사한다. 이어서는 소프라노 박성의, 테너 최원갑이 특별 출연해 김동진 곡 '목련화와 '신아리랑'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의 메인무대라 할 수 있는 'Hi Estonia'에서는 에스토니아의 자연과 정서를 노래한 아름다운 곡으로, 세계 주요 국제합창대회 우승팀의 레퍼토리로도 널리 불려지는 에스토니아 작곡가 벨조 포르미스의 'Modal Etudes'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아리랑 환타지를 비롯해 한국민요모음, 장구춤 등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진륜 작곡 '아리랑 환타지'는 지난해 제6회 발리국제합창제에서 Artistic상을 수상한 곡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민요모음에서는 아리랑과 도라지타령, 한강수타령, 경북궁타령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의 안무로 흥겨움을 더해준다.

이번 무대는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연주회에 앞서 5월 9일 동래문화회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5월 9일 수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1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공연

한·중·일 문화교류와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적 문화행사인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공연이
 5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면서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첫 해인 2014년 광주(한국)·취안저우(중국)·요코하마(일본)를 시작으로 2015년 청주·칭다오·니가타, 2016년 제주도·닝보·나라, 2017년 대구·창사·교토에 이어 올해는 부산과 하얼빈, 가나자와 등이 선정됐다.

이번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공연에서는 한국의 멋과 신명을 담은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이매방 오고무'를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 개회사, 2017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 '정과정' 무대에 이어 중국의 전통무용, 일본의 전통악기 공연, 그리고 대중음악과 전통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강렬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피날레공연으로 펼쳐진다. 식전행사로 마련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이매방 오고무'는 역동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북의 소리와 춤사위로 국가적인 행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한국의 멋을 알리는 대표적인 춤이다. 지역 창작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창작극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과정'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연극과 음악, 미디어 파

사드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연출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리말 고려가요인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고려 의종 때 동래현(동래구 일대의 옛 이름)으로 유배온 정서(鄭敍)가 자신을 다시 부르겠다는 임금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정자를 짓고 오이를 심으며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 지었으나 끝내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노래로, 현재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다. 피날레 무대에서는 사우팅이 매력적인 락 가수 김경호와 팬텀싱어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

한 관동현, 그리고 광개토 사물놀이패가 만나 락과 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이번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공연은 앞서 지난 1월 4일과 3월 2일, 하얼빈과 가나자와에서 먼저 펼쳐졌으며, 이날 개막공연에는 부산시립무용단·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참가해 축하무대를 펼친 바 있다.

5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열리는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3개 도시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콘서트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통거리예술제, 영화로 보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국제 레지던시 사업, 동아시아 청년 글로벌 캠프, 세계 선차아회대회, 아시아송페스티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



일시 5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 513-7772

프리뷰

화려한 만남 II



지난 2016년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교류음악회에 이은 ‘화려한 만남’ 두 번째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창단연도가 같은 대구시립국악단이 한 무대에 선다. 특히 대구시립국악단과의 이번 무대는 창단 30주년을 함께 맞았던 지난 2015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30주년 기념 교류음악회에 이어 3년만에 갖는 합동무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악단체의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984년 5월 창단한 대구시립국악단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단으로서 우리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한편, 한국음악(국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그리고 생활화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상임지휘자 이현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해오고 있다.

1부에서는 대구시립국악단이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창작국악곡인 ‘고구려의 혼’을 시작으로 대금산조의 모태로 알려진 강백천의 대금가락에 감동된 특유의 애절함과 절도있는 가락이 더해진 김동진류 대금산조 협주곡 ‘부활’을 대구시립국악단 대금수석인 배병민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성악이 어루러지는 무대로, 테너 최덕술, 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II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이 타 시도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마련하는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II’가 5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프라노 이운정이 우리민요 ‘박연폭포’와 작곡가 어구스틴 라라의 ‘그리나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의 변함없는 우정을 기원하는 ‘우정의 노래’를 들려준다. 테너 최덕술은 경북대학교 성악과 및 독일 국립 뒤셀도르프 음악대학 대학원, 이태리 로마 아르츠 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소프라노 이운정은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이태리 로마 AIDM, 로마 ARENA 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그동안 고태국 성악콩

쿠르 대상, 한국음협 전국성악콩쿠르 최우수상, 중앙음악콩쿠르 여성성악 우승,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부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자연의 변화무쌍한 신비로움에 경의감을 표현한 창작국악관현악 ‘대지 II’를 첫 곡으로, 담백하면서도 단단한 구성미를 자랑하는 김운덕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경기도당굿 타악장단을 바탕으로 경상도 메나리토리와 전라도 육자배기토리 선율로 구성된 경기도당굿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 해외무대에 다수 초청 받은 가야금주자 이수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쟁과리), 최오성(장구), 박재현(징), 최정욱(제금)이 협연자로 관객들과 만난다.

일시 5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최수열



로만 김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도 불리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와 림스키-코르사코프 특유의 풍부한 색채감과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손꼽히는 교향적 모음곡 작품 35 '세헤라자데'를 들려준다. 첫 곡인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는 멘델스존의 전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이 곡을 모르는 애호가도 없다고 할

만큼 유명한 곡이다. 남성적인 베토벤의 협주곡에 비해 여성적인 협주곡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마지막 악장의 힘찬 정열은 충분히 남성적이며, 선율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기교의 매력은 바이올린 협주곡의 꽃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테크닉과 폭발적 에너지로 '신들린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로만 김은 러시아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0년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에 입학한 후 2007년 러시아의 바이올린 영웅 막심 벤게로프를 비롯해 고토 미도리, 루이스 카플란, 미리암 프라이드, 기돈 크레머 등 거장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실력을 다졌다. 16세 때인 2008년, 독일 쾰른음악학교에 입학해 거장 빅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 같은 이야기

뛰어난 비루투오소적인 연주와
자유분방한 에너지,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으로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김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 같은 이야기'가
5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토르 트레차코프를 사사하며 작곡 공부도 병행한 로만 김은 2012년 제28회 발세시아 뮤지카 국제음악콩쿠르 1위, 쾰른 국제음악콩쿠르 1위를 수상하며 세계적 명성의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데뷔무대를 가졌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바이올린 솔로곡으로 재해석한 연주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탄 로만 김은 특히 19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전설 니콜로 파가니니를 연상시키는 신기에 가까운 현란

한 손놀림으로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1세기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또다른 곡인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음악적 감각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호화로운 멜로디와 더불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큰 명성을 누리고 있다. 특히 이 곡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음악 그 자체는 특정한 서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꿈 같은 이야기

일시 5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프리뷰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사인 스타인웨이
가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연주자들을 선발, 연주기
회를 제공하는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
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21세의 젊은 나이를 뛰어넘는 섬세
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세계
적 권위의 부조니국제피아노콩쿠르에
서 우승한 이반 크르판의 첫 내한무
대로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된 '스
타인웨이 위너 콘서트'는 그동안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를 비롯한
세계 8개국 콘서트홀에서 열렸으며,

2016~2017년 시즌에는 총 30명의 연주자가 독주무대를 가진
바 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은 6살 때부터 피
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어린시절 Renata Strojic 교수를 거
쳐 2013년 자그레브 음악아카데미에 진학하면서 Ruben
Dalibaltayan 교수를 사사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EPTA
(European Piano Teacher's Association) 국제피아노콩쿠르
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반 크르판은 자그레브에서 열
린 비르투오시(Virtuosi) 국제피아노콩쿠르, 네덜란드 엔스헤
데 국제콩쿠르, 울름 다뉴브 국제피아노콩쿠르 2등, 주하이 모
차르트 국제콩쿠르 1등, 제10회 모스크바 청소년 쇼팽콩쿠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2017 부조니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이
부산을 찾는다.

3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는 젊
은음악가협회 'Jeunesses Musicales
Croatia'로부터 가장 뛰어난 크로아
티아의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
예의 'Ivo Vuljević'상을 수상하며 그
해 '젊은 크로아티아 음악인'으로 선정
된 바 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 국제아
카데미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2016
년에는 자그레브 필하모니 오케스트
라로부터 '올해의 젊은 음악인'으로 선
정되기도 했다. 이반 크르판은 그동안
Dalibor Cikojević, Siavush Gadjevi,
Ruben Dalibaltayan, Djordje

Stanetti, Kemal Gekic, Pavel Gililov, Klaus Kaufmann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했으며, 현재는
이탈리아와 독일,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남미 등에 초청받아
연주자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 자신이 스스로 '속녀들을 위한 섬세한 작
품'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아한 매력을 보여주는 '아라베스크 다
장조 작품 18'과 당시 연인이었던 클라라에 대한 로맨틱한 열정
이 깃든 '환상곡 다장조 작품 17', 그리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
리는 쇼팽의 대표곡인 '24개의 전주곡 작품 28' 등 낭만 가득한
피아노 명곡을 이반 크르판만의 환상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음색
의 연주로 들려준다.

Ivan Krpan

일시 5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The Phantom Chorus



지휘: 진진

부산시립합창단



특히 이번 무대는 클래식의 대중화 프로젝트인 JTBC의 '팬텀싱어'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로 음악 회를 구성, 클래식에서부터 가곡, 뮤지컬넘버, 국악, K-pop,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국판 '일 디보' 프로젝트로 불리는 '팬텀싱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성 4인조 팜페라 그룹 '일 디보'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2016년과 2017년 두차례 시즌을 통해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 '포레스텔라'를 발굴, 음반 발매와 순회 콘서트를 통해 수많은 화제와 뜨거운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운희, 이은화, 정해빈, 이소진, 문지은, 윤경미, 지혜정 등 실력있는 작곡자들이 편곡자로 참여해 '팬텀싱어'를 통해 소개된 곡들을 합창, 중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편곡, 합창음악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전해준다. 또한, '팬텀싱어' 투어 콘서트 세션으로 직접 참여했던 베이스기타리스트 김대희와 방탄소년단, 김범수, 백지영의 세션으로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황보승, 서초교향악단 팀파니 단원으로 있는 드럼주자 윤민구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악단의 강렬한 전자음악 사운드에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연주자들의 섬세한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더욱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

그동안 다양한 기획으로 합창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가 5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부 첫 무대는 합창무대로, 시즌 1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탈리아 가수 주케로가 부른 '일 리브로 델 라모레(Il libro dell' amore)'와 케이윌의 가요를 성악버전으로 노래한 '꽃이 핀다', 음반 발매 후 각종 클래식 차트에서 인기를 얻었던 시즌 2의 'La Vita'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리메이크해 큰 인기를 모았던 이탈리아 가요 '카루소(Carus)'와 'Musica'를 남성 2중창으로, 시크릿가든과 조수미가 만나 화제가 되었던 '달꽃'을 여성 2중창으로 만날 수 있다. 아일랜드 민요 '대니보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유명한 '그대가 모르는 사랑(Dell' amore non si sa)', 창작뮤지컬 '이순신의 삼입곡 '나를 태워라'는 합창 앙상블로 들려준다.

2부에서는 남성 4중창으로 들려주는 '따뜻한 위로(impossibile vivere)', 'I surrender', 'Odissea'에 이어 이탈리아 출신 팜페라 그룹 일 볼로(IL VOLO)의 노래로 유명한 '위대한 사랑(Grande amore)'은 남성 2중창, 창작동요를 남성 2중창으로 멋지게 불러 화제가 되었던 '어느 봄날은 온 혼성 2중창, 세계적인 팝가수 비운세의 'Halo'는 여성 4중창으로 들려주며, '팬텀싱어'에서 중창곡으로 소개되었던 '배웅'과 'Luna', '꽃은 합창곡으로 편곡,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일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프리뷰



‘오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8년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관객들을 행복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오고 있다.

‘오페라 이야기’의 세 번째 주인공은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구노와 비제.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사)고려오페라단 단장, 부산심포닉밴드 상임지휘자, CMK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기균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김동원, 바리톤 시영민의 협연으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의 주요 아리아를 1, 2부로 나누어 들려준다.

1부 무대는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구노가 세익스피어의 문학에 우아하고 섬세한 음악을 결합해 탄생시킨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서곡을 시작으로 아리아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라’, ‘떠올라라 태양이여’, ‘당신을 용서하겠어요’를, 2부에서는 비제의 오페라 테뮌작이자 숨은 보석같은 작품인 ‘진주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 ‘다시 한 번 그녀의 목소리를’, ‘지난날 어두운 밤에’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지휘를 맡은 객원지휘자 이기균은 그동안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제1회 러시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I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세 번째 무대가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탈라찌 국제관악콩쿨 심사위원 및 음악지도상,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창작오페라 부문 최우수상, 제2회 대한민국 예술 문화 공헌상, 제43회 부산음악상(지휘)을 수상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성은은 스페인 비냐스국제콩쿠르 우승,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 이태리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등 유명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활동해왔다. 테너 김동원은 바르셀로나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콩쿠르 특별상, 코부르크 Alexander Girardi 국제콩쿠르 1등, 트로기르 국제테너콩

쿠르 1등 등 국제콩쿠르를 석권하고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2016 대한민국음악대상 ‘올해의 성악가’에 선정됐으며, 바리톤 시영민은 중국 닝보국제성악콩쿠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부일 성악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Matinee
Concert

일시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3회 예인예술제

5월 2일(화)-14일(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전시장

초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12-1372,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3회 예인예술제

부산 예술계의 원로 예술인들을 초대,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제3회 예인예술제가 5월 2일부터 부산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영화인총연합회, 부산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예인예술제는 지역 예술문화의 근원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무대로, 올해는 공연과 전시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제로 치러진다.

우선 전시는 ‘예인미술전’과 ‘예인사진전’으로 나뉘어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부산원로작가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예인미술전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들 중 만 75세 이상의 35년 이상의 화력을 가진 원로작가 28명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예인사진전 ‘흔적, 그 기억’에서는 1950년대 부산대학교 홍예문 모습, 1970년대의 을숙도, 명지, 자갈치시장, 부산남항, 광복동의 풍경과 1990년대 건설 중인 광안대교 등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의 발전상과 흔적들을 담은 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연부문에서는 무용제, 국악제, 연극제, 연예

제, 영화제, 음악제가 5월 2일부터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산 춤의 텃밭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예인무용제에서는 김온경(산조춤), 김진홍(한량춤), 심지영(창작무 ‘여인의 갈망’), 김명자(살풀이춤) 선생의 무대가, 예인국악제에서는 이제는 부산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성창무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다. ‘부산원로예술인의 전통 가요무대’인 예인연예제에서는 부산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 지회장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최동휘 선생과 가수 함중아가 출연해 우리 귀에 친숙한 가요를 들려준다.

‘예인 허영길 연출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예인연극제는 어느 공연장의 개인 분장실을 배경으로 한 연극 ‘무대 뒤에서(원제 분장실)’를 허영길 선생의 연출로 무대에 올리며, 5예인영화제 ‘영화, 시간을 잇다’에서는 원로배우 김현탁이 출연한 ‘나는 오늘도 집을 나선다’와 강지훈 감독의 ‘안녕, 나도 사랑해!’ 등 두 편의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예인음악제는 ‘부산원로음악인 연주회’로 제갈삼, 김국진, 김종태, 최인식, 정원상 선생이 작곡한 창작곡을 후배, 동료 음악가들의 연주로 들려준다.

주요 일정

- 예인무용제 '부산 춤의 텃밭을 일군 사람들' 5월 2일(수)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예인미술전 '부산원로작가전' 5월 2일(수)-7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예인국악제 '여성창무극_춘향전' 5월 3일(목)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예인연예제 '부산원로예술인 전통가요무대' 5월 4일(금)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예인연극제 '예인 허영길 연출전' 5월 9일(수)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예인사진전 '흔적, 그 기억' 5월 9일(수)-14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예인영화제 '영화, 시간을 잇다' 5월 10일(목)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예인음악제 '부산원로음악인 연주회' 5월 11일(금)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의 축제
2018 제15회 부산국제연극제

유희 Play
해양 Ocean
축제 Festival

개막작 맥베스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1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지난해부터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의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보다 활기찬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 한 곳에 몰려있는 센텀시티와 광안리 일대로 공연장소를 옮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유희, 해양, 축제’라는 테마로 펼쳐지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일본, 브라질·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한국 등 7개국 7개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초청프로그램과 거리극 경연프로그램인 ‘다

5월 18일(금)-27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리하설름,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KNN시어터, 부산예술회관, 광안리일대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BIPAF KIDS 공연 전석 1만원,

다이나믹 스트리트·10분연극제 무료)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이냐믹 스트리트(Dynamic Street)’,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청 프로그램으로는 2018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주쿠양산박(일본)의 ‘맥베스(개막작)’와 극단 도자두(브라질·프랑스)의 ‘그리토스(폐막작)’를 비롯해 소극장 뮤지컬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쓰릴 미’의 본고장인 영국 클리바르 프로덕션의 ‘쓰릴 미’, 지난해 부산연극제 폐막작으로 부산을 찾았던 그리스 극단 IDEA의 ‘안티고네에서 메데아까지’, 살아 움직이는 예술로서의 연극을 지향하는 한 국극단 가변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를 극단 가변만의 이해와 해석으로 풀어낸 ‘오델로 니그레도’, 그리고 이스라엘 극단 트레인 씨어터의 ‘타이니 오션’, ‘테일러 메이드’가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창의적인 인형극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 인형극의 큰 발전을 이끌어낸 극단 트레인 씨어터의 ‘타이니 오션’, ‘테일러 메이드’는 가정의 달 5월에 열리는 부산



국제연극제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아동극 프로그램인 'BIPAF Kids with Israel' 초청작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재일교포 3세인 연출가 김수진의 독특한 양식을 한껏 내포한 개막작 '맥베스'는 '그 때, 거기'서 쓰인 작품이 '지금, 여기'에 왜 무대에 올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고전의 특성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현대성을 제시한다. 폐막작인 '그리토스'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미 두 차례나 부산국제연극제를 방문한 극단 도자두의 최신작으로, 사회의 절망을 표현하는 배우들의 뛰어난 신체 움직임으로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개막작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폐막작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지난달 열린 제3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축하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며, 초청작인 극단 가변의 '오델로 니그레도'는 5월 26일 오후 2시 시청각 장애우를 위한 자막 및 음성 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특별공연으로 한차례 상연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다이나믹 스트리트(Dynamic Street)'은 광안리를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극 공연으로, 국내 타 거리극 축제와는 차별화된 부산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지리적 환경이 작품 속에 함께 공존한다. '다이나믹 스트리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본선 진출 11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해외팀으로, 5월 24일부터 나흘간 광안리 만남의 광장을 무대로 경연을 펼친다.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열띤 경연의 장 '10분 연극제'는 5월 23일과 24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일반부와 대학전공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객과 아티스트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아티스트 토크'는 초청공연 관람 후 마련된다.

2018 제15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 프로그램

개막작 일본 신주쿠양산박 '맥베스'

5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재일교포 3세로,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연극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김수진 연출가를 주축으로 결성된 신주쿠양산박의 '맥베스'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비극적 운명의 대서사시를 담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맥베스'를 선보인다.

영국 클리마르 프로덕션 '쓰릴미'

5월 20일(일)-22일(화) 오후 7:30 KNN시어터

소극장 뮤지컬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쓰릴 미'가 본고장인 영국 극단 클리마르 프로덕션의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 단 1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탄탄한 음악과 심리 게임을 방불케 하는 두 인물의 갈등구조는 관객과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등극했다.

이스라엘 트레인 씨어터 '타이니 오션' [BIPAF Kids]

5월 20일(일)-21일(월) 오후 2:00, 22일(화) 오전 11:00, 오후 2:00

영화의전당 리허설룸

가정의 달 5월에 펼쳐지는 부산국제연극제가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한 아동극 프로그램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된 후 이스라엘 인형극 발전을 이끌어온 트레인 씨어터를 초청,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같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타이니 오션'은 창의적인 소품 활용과 배우들의 풍부한 표정, 섬세한 몸짓을 통해 저 작지만 넓은 바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스 극단 IDEA '안티고네에서 메데아까지'

5월 23일(수)-24일(목) 오후 6: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지난해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으로 부산을 방문했던 극단 IDEA가 올해 상임연출 코스타스 가키스(Kostas Gakis)의 이름을 내세워 다시 한 번 부산국제연극제를 찾았다. '안티고네에서 메데아까지'는 대지가 한 줌의 흙으로만 존재하던 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이데아를 갈망하는 시대까지 존재한 10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벽을 허물고 비로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이데아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스라엘 트레인 씨어터 '테일러 메이드' [BIPAF Kids]

5월 24일(목)-25일(금) 오후 2:00, 26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영화의전당 리허설룸

재단사를 꼭 닮은 요정이 안내하는 특별한 옷을 만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되는 '테일러 메이드'는 실, 바늘, 가위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세트가 마치 놀이터처럼 어린이 관객들의 동심어린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국 극단 가변 '오델로 니그레도'

5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2:00 (※배리어프리 특별공연), 7:30 KNN시어터

극단 가변의 2018년 오델로는 두 전쟁터를 오간다. 하나는 현실의 전쟁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허구'에만 존재하는 전쟁터이다. 이야기의 계약에 넘어가 혼자만의 상상에 빠진 오델로는 그 상상이 결국 현실이 되어 스스로 파국을 맞이한다.

폐막작 브라질 프랑스 극단 도자두 '그리토스'

5월 26일(토)-27일(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브라질의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어 프랑스에서 결성된 극단 도자두의 신작인 '그리토스'는 한 평생 사랑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표현한다.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다시 조명하다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지난 1998년 개관 후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김선희)이 부산 근대미술의 태동기인 일제시기부터 전반기 문화의 중심이 된 피란수도 부산까지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 역사를 조망하는 특별한 기념전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기념전에서는 부산에 근현대 미술이 자리 잡은 개항 이후 일제시기와 부산의 현대적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피란수도 시기를 조명하는 개관 20주년 기념전과 부산의 1세대 서양화가 김종식 선생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특별전을 선보인다. 우선 7월 2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는 부산 근대미술의 태동기인 일제시기, 부산미술의 내면을 살펴보는 1부 ‘모던, 혼성 : 1928-1938’과 한국전쟁기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2부 ‘피란수도 부산_절망 속에 핀 꽃’ 등 2개의 특별전이 펼쳐진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면서 미술활동을 하였던 일본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한국근대미술가들과의 교류관계를 다루는 ‘모던, 혼성 : 1928-1938’에서는 ‘조선에 온 일본인 화가들’, ‘부산을 거쳐간 일본인 화가들’, ‘안도 요시시게, 부산을 그리다’, ‘일제시기 부산의 서양화가들, 임응구에서 김종식까지’, ‘춘광, 근대의 빛을 찾아서’ 등 5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 중 ‘안도 요시시게, 부산을 그리다’에서는 1927년, 부산으로 건너온 후 동경예술학교 출신이자 제1회 입선작가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부산지역의 미술인을 선도하는 작가로 자리 잡은 안도 요시시게의 작품을 선보인다. 안도 요시시게는 다른 일본



- 1_ 마쓰다 레이코 '주막' (1930년대)
- 2_ 안도 요시시게 '하얀 저고리를 입은 소녀' (1920년대 후반)
- 3_ 김환기 '판자집' (1951)
- 4_ 김종식 '자갈치제빙회사' (1953년)
- 5_ 이종섭 'MP' (1952년)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3월 16일(금)-7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관

부산의 작고 작가, 김종식展

5월 25일(금)-8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인 화가들과는 달리 같은 생활인으로서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을 담담하게, 하지만 세심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그린 작품을 남겼다. '일제 시기 부산의 서양화가들, 임응구에서 김종식까지'에서는 1928년 도교미술학교에 입학하며 부산 지역 최초로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한 유학생 임응구(1907~1994)와 부산 지역의 일본인 화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우신출(1911~1992), 그리고 김종식(1918~1988)까지 부산의 1세대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춘광, 근대의 빛을 찾아서'에서는 1939년 말 부산 최초의 서양화 동인단체였던 춘광회의 활동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서양화 양식을 기반으로 '최신 감각'을 드러내고자 했던 부산 미술인들의 '모던' 정신을 살펴본다.

개관기념전의 또다른 전시인 '피란수도_절망 속에 핀 꽃'에서는 피란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창작의지를 불태우며 전쟁 속 예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양달석, 우신출 등 26명의 작품 101점이 소개된다.

5월 25일부터는 부산의 1세대 서양화가인 김종식(1918~1988)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의 작고 작가, 김종식'전이 열린다. 김종식은 부산 근대 미술의 선구자이자 작가, 교육자로 부산의 근현대 미술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정식 미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던 당시, 일본 동경제국미술대학(현 무사시노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부산 최초의 서양화 그룹 '토벽 동인'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수

묵으로 화업을 시작한 김종식은 대담한 필치와 과감하고 강렬한 색채를 구사했으며 동시에 균형잡힌 조형감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한 한국미술계의 선구자였으나 그동안 적절한 조명 기회 없었던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자신만의 색채와 조형감각으로 표현한 '현실의 애환(1939-1959)'을 시작으로 형상의 추상보다 의미의 추상성에 몰입했던 '추상의 정취(1960-1969)', 전통산수화가 지닌 관조적인 시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풍경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순간의 감흥, 필치가 짙게 드러났던 '남화'의 세계를 다룬 '새로운 남화(1970-1979)', 조형적 의미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의 형상이 돋보이게 등장한 '형상적 풍경(1980-1988)', 그리고 2만여 점에 이르는 드로잉 작품을 통해 작가만의 회화적 성취를 다른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회화의 성취, 흑백드로잉(1939-1988)'까지 5가지 테마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은 부산미술의 근대적 자각과 정체성의 출발점을 재조명하고, 한국현대미술사의 새로운 전환의 동력을 제공했던 피란수도 부산의 숨겨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로, 부산미술의 태동기를 통해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다시 조명해볼 수 있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art.busan.go.kr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피가로 사용법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음악평론가 **신설령**

조운범의 해설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3월 공연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로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 등 두 편의 오페라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 3월 마지막 수요일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한, 날들이하기 좋은 봄날 오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일찍부터 관객들로 붐볐다.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이라는 마티네 콘서트는 조운범의 해설로 시작되었다. 그의 해설은 재미있다. 그리고 그 해설은 오페라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며, 적절한 때에 관객들이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게 함으로 클래식음악회가 주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해설을 통해 오페라 스토리를 어느 정도 숙지하면 이제 연주를 즐길 시간이다.

연주 전반부는 이종진 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바리톤 김은곤의 ‘다시는 날지 못하리’, 소프라노 양제경과 조운범의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양제경의 ‘빨리 와요, 기쁨의 순간이여’가 이어졌다. 바리톤 김은곤은 ‘피가로의 결혼’에서 ‘다시는 날지 못하리’를 부르고, ‘세비아의 이발사’에서는 피가르가 노래하는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를 부르는데 소리고, 연기도 좋았다. 그런데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가사를 오케스트라가 따라가기 버거웠는지 가끔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아쉬웠다.

편지 이종창으로 알려진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는 백작부인 역의 조운범의 우아함과 수잔나 역을 맡은 양제경의 발랄함이 어우러져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LP판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레드 역의 모건 프리먼의 대사 또한 기억에 남는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이탈리아 여자가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노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중창이 사실 백작부인이 수잔나와 함께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계획하고, 남편을 유혹하는 편지 내용을 말하면 수잔나가 그대로 받아 적는, 좀 웃기는 장면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이전에 이 곡을 들 때는 영화 대사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로 들었는데, 자막을 읽으며 연주를 보노라면 이렇게 코믹한 장면을 그처럼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차르트의 유머를 보는 것 같아 또 다른 느낌이 든다.

수잔나의 아리아 ‘빨리 와요, 기쁨의 순간이여’를 부르는 양제경은 표현력이 풍부한, 연기가 뛰어난 성악가이다. 노래를 잘 하는 성악가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객을 자신의 노래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래서 자신의 노래에 집중하게 하는 성악가이다. 후반부에서는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 중 바리톤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소프라노 양제경의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남성 이종창 ‘돈만 있으면’, 테너 전병호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 연주되었다. 남성 이종창에서는 로지나를 사랑하는 순정적 캐릭터의 백작의 노래와 사기꾼 같은 피가르의 능청스런 노래를 아름답고도 재미있게 버무려낸, 로시니의 음악적 재능을 탁월하게 표현해낸 바리톤 김은곤과 미성의 테너 전병호를 만날 수 있었다.

모차르트의 피가르로는 유머를 아름다운 은유로 풀어내고, 로시니의 피가르로는 팡팡 터지는 코믹함을 던진다. 피가르를 주제로 한 두 작곡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며 들을 수 있었던 이번 마티네 콘서트는 이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전막 공연이 있을 때 보다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대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클래식 콘서트의 새로운 가능성 부산심포니의 ‘음악과 철학의 만남’



◆ 음악평론가,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위원 **김창욱**

콘서트의 성취를 위해서는, 컨셉트·프로그램·레퍼토리 등에서 무엇보다 수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컨셉트(concept)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이념적 지표와 상관되며, 설정된 컨셉트로부터 프로그램·레퍼토리와 같은 구체적인 가치와 즐거움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컨셉트로 클래식과 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올해 들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꾸미고자 한다. 즉 ‘2018 노자와 베토벤-고주망태(孤酒忘態)’가 그것이다. ‘고독·술·망각·태도’라는 테마로 연 4회, 분기별로 클래식 무대를 열 예정인데, ‘노자’로 상징되는 동양의 철학적 주제를 ‘베토벤’이 의미하는 서양음악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단의 노력이다.

그 첫 무대인 ‘고(孤)’(3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는 강병인 캘리그래퍼의 대형 ‘고주망태’ 손글씨 퍼포먼스가 있었고, 곧이어 오충근 지휘자와 최진석 철학자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철학자가 고독에 내재된 철학적 의미를 이야기하면, 지휘자는 그와 관련된 작곡가와 그와 조응되는 음악을 연주하는 식이다.

가령 철학자가 ‘고’를 ‘외로움’과 ‘고독’으로 구분한 다음, 누구나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 ‘외로움’과 그에 따르는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창출하려는 사람은 ‘고독’하지만 공허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아실현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한다. 그러면 지휘자는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쓴 베토벤과 철학한 고독 속의 ‘영웅’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짙은 고독감을 ‘영웅’ 제2악장의 실제 연주를 통해 선보인다.

때로는 토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렉처가 되기도 하는 콘서트는 스비리도프와 브람스의 음악으로 확장되면서 종속과 자유, 중심과

주변 등과 같이 논의의 깊이와 폭도 시나브로 넓혀 갔다. 철학자의 입담은 해학적이었으며 명징(明澄)했고, 지휘와 연주는 안정감 속에 내재된 세련미가 돋보였다. 다만, 2시간을 훌쩍 넘긴 무대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 주최측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음악을 의미하는 ‘뮤직(music)’은 고대 그리스어 무지케(Mουσική)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무지케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뮤직’의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 즉 고대의 춤·노래·내러티브(narrative)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후 변화·분화되었고, 어느 순간 각각 독립된 장르로 정착되면서 경계 지어졌다. 또한 음악은 기악과 성악으로 분화되었고, 기악은 다시 관악과 현악, 피아노로 각각 경계 지어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담벼락은 높았고, 서로의 소통은 일찌감치 단절되었다. 성악은 성악끼리 어울리고, 기악은 기악끼리 어울렸다. 성악은 기악을 모르고, 기악은 성악을 몰랐다. 오직 자기 세계에만 갇혀 각각 제 할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면 다들 무사할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음악생태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경계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융·복합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은 통폐합을 앞두고 있고, 민간의 음악 학원과 전통적인 레슨시장은 시나브로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융합하고, 무엇을 복합할 것인가? 무엇보다 통합적 음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철학·문학·영화·연극·춤·미술과 같이 인접한 예술장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어디 그뿐일까? 음악과 사회, 음악과 종교, 음악의 전통과 현대, 서구 음악과 제3세계 음악 등 음악의 융·복합 가능성은 어디나 열려 있다. 그럼에도 클래식은 고고(孤高)하며 여전히 고색창연(古色蒼然)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우뚝 서다

예술의전당 2018 교향악축제



젊음의 역동성과 싱그러움으로 단장한 부산시립교향악단

◆ …… 음악평론가 정춘식

봄은 화려한 채색으로 단장한 꽃들의 향연으로 시작되고 있다. ‘2018 교향악축제’에서 만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봄나들이는 봄을 파종하는 원정(園丁)의 가위가 되어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이 봄을 재단하려 한다.

작곡가 진은숙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중 ‘영망진창 티파티’는 다과회 손님으로 온 엘리스의 기상천외한 풍경과 상상력의 극적이고 음악적인 유머로 잘 포장된 작품이다. 극적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악기배합으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시도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보는 재미와 듣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차원에선 상당히 돋보인다. 지휘자 최수열은 젊은 패기와 열정을 뽐내며 극심한 혼란과 분열, 차별화된 작품속의 혼돈의 카오스를 타악기의 격렬함과 경쾌한 리듬의 현대적 질감으로 시간을 죽이는데(murdering time) 성공한다.

200여 년 동안 잠자다 깨어난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1번은 원숙기에 작곡된 2번과는 달리 바로크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든 작품이다. 협연자 심준호의 맑은 톤 칼라와 화려한 테크닉이 힘찬 투티 다음에 오는 경쾌한 주제와 잘 부합되는 연주였다. 2악장 아다지오는 첼로가 만들어내는 우아하고 고요한 선율속에 마음의 평온과 따스함이 배어나도록 하는 프레이즈의 처리가 한결 여유로워 보인다. 처음의 긴장감이 많이 누그러진 듯 자신의 프레임에 맞추어 만들어내는 선율이 매우 선명하다. 간결하고 날렵한 3악장 알레그로 몰토는 바로크 협주곡처럼 총주 부분에서는 간결하게 주제가 전개되는데 빠른 패시지의 운지하는 손가락 끝에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앙코르곡으로 연주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는 열광하는 청중에 대한 답례였다.

차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회자되는 최수열은 3년간의 서

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어시스턴트로 활약한 바 있다. 그가 취임하고 바로 착수한 것이 음악철학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사이클링이다. 바그너 음악과 쇼펜하우어, 니체의 철학에 심취한 슈트라우스에게 교향시는 어쩌면 절대 명제였는지 모른다. 최수열이 니체와 슈트라우스에 어떻게 접근할지 작곡가의 창작 의도를 어느 만큼 접근하여 해석해 낼지 궁금하던 차에 이번 교향악축제는 그의 시험무대의 장이 되었다고 본다. R.슈트라우스의 ‘가정교향곡’의 근간(根幹)은 가족 간의 사랑과 즐거움과 화목이다.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강해서도 안 된다. 표제를 붙인 주제가 마음 편안함을 시작으로 하듯이 부드럽고 정감이 넘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고 삶의 일상으로 곱게 포장하여야 한다.

오케스트라와의 대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현악기군의 사운드가 조금 약한 것이 아쉽지만 많은 연습을 했어도 작품 안에 담겨있는 색깔을 찾아내는 것은 지휘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범하고 단란한 하루의 일상에서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내재된 소리의 물감을 풀어 각기 다른 다양한 무늬의 채색을 배합해 배열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이 음향 분할의 콜라주 기법이든 분절된 사운드의 하모니적 앙상블이든 작곡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휘자는 찾아내야 한다.

금관과 타악기의 앙상블 역시 좋았다. 최수열의 교향악축제 봄나들이는 성공적인 출발로 보인다. 그동안의 칙칙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젊음의 역동성과 싱그러움으로 단장한 채 소리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슈트라우스든 라벨이든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만나보려 한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때로는 일탈을 꿈꾸기도 하지만 최수열은 일상에 대한 짧은 일탈이 그의 음악 만듦에 있어 상징적인 오브제임을 안다. 그래서 기대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변모와 발전을….



음악이 ‘음(音)’을 즐기는 ‘악(樂)’임을 증명한 무대

◆ …… 음악칼럼니스트, 클라라하우스 대표 **유혁준**

우리 음악계에서 ‘현대음악’ 하면 최수열이 아니었던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가운데 ‘엉망진창 티 파티’ 연주를 위해 지휘대에 선 최수열은 거침없었다. 무대 오른 쪽, 강력한 호각 소리를 신호로 각양각색의 타악기가 빛을 발하며 시작한 3분여의 시간은 공연 초반 산만한 청중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지휘봉을 들지 않고 양손을 휘휘 저으며 무대를 가득 채운 오케스트라를 한달음에 제압하는 최수열의 솜씨는 음악이 ‘음(音)’을 즐기는 ‘악(樂)’임을 증명해주었다.

4월 13일 저녁, 2018 교향악축제의 반환점을 돈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비는 간혹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다. 1년에 한 번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서울 나들이가 있는 날이자, 부산에 ‘최수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악단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서울 나들이를 해도 될 만한 실력과 ‘볼거리, 들을거리’를 갖춘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변해 있었다.

심준호가 협연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은 외면과 내면이 적절하게 합쳐진 호연이었다. 1악장 시작과 함께 강력한 더블스토핑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심준호의 활은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중음(重音)에서 각 성부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었지만, 기교적인 완벽함 뒤에 인간미가 슬며시 고개를 들며 살아 있는 음악으로 이끌어갔다.

작년 9월 29일 부산에서 만난 최수열 지휘자의 취임연주회 첫 곡은 놀랍게도 하이든의 교향곡 1번이었다. 독주 악기의 반주만을 담당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모차르트와 함께 시대의 아픔을 공유했던 인간 하이든을 적극적으로 표방했다. ‘레가토’ 위주의 안일한 부드러움보다는 때로 ‘논 레가토’를

견지하며 당대 연주 풍의 강한 이미지를 동반했다. 심준호가 앙코르로 선사한 생상스의 ‘백조’는 본 프로그램에 준하는 감동을 전했다. 전반부는 현악 앙상블과 함께, 후반부는 무반주로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성을 올곧게 담아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첫 호흡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으로 맞춘 최수열의 야심한 계획은 2019년까지 12개의 교향시 전곡을 완주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를 기능적으로 조련하기에 슈트라우스만큼 좋은 대상은 없다. 즉 오케스트라의 테크닉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가정 교향곡’을 위해 최수열이 선택한 악기 배치는 실로 놀라웠다. 더블베이스를 무대 최후방에 배치하고 팀파니와 타악기를 오른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19세기 중부 유럽 오케스트라는 1, 2 바이올린이 양쪽으로 갈리고 저음현악기는 무대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 최초로 저음악기를 우측으로 가게 해 최근까지 대세를 이뤘다. 최수열은 므라빈스키가 20세기에도 고수한 중부유럽 식 ‘레닌그라드 편성’과 ‘스토콥스키 편성’을 절충해 독특한 음향효과를 자아내게 했다. 더블베이스의 전체 악기를 감싸며 입체적인 저음을 들려줬고 팀파니와 타악기의 타격은 오디오적인 쾌감까지 불러일으켰다. 베토벤 ‘영웅’ 교향곡에서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분리되었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셈이었다.

1부, 어린이의 주제를 읊는 오보에 다모레의 음률은 곡 타이틀 그대로 ‘가정적’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타내는 주제는 뚜렷했다. ‘스케르초’의 행복감은 충만했고, ‘아다지오’의 ‘사랑의 정경’은 장대했다. 마침내 4부 피날레의 찬란한 마무리는 청중의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최수열에게 부산시립교향악단 이전은 ‘빌린 악기’였다. 하지만 이제 ‘자기 악기’를 장착한 최수열은 더욱 비상하고 있다. 더불어 부산시립교향악단 또한 젊고 끼 있는 음악감독과 한 배를 타고 순항 중이다. 악단의 테크닉을 연마한 슈트라우스 사이클이 끝난 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다음 차레는 반드시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여야 한다. 그때는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뚝하니 어흥!'

일 시 3월 16일(금)-5월 31일(목) 오전 11:00 (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 관객을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두 번째 작품. 지난 2015년 제4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아시테지상을 수상한 '뚝뚝하니 어흥!'은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3가지 전래동화를 소재로, 극 중 교훈을 통해 용기와 협력, 용서와 관용을 어린이들에게 전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도깨비 마을의 대장 '뚝뚝하니'가 꼬마 도깨비인 관객들과 함께 도깨비 마을에 숨어들어 호랑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나쁜 호랑이를 쫓아내며 위기에 처한 오누이를 도와주는 등 배우들과 함께 극을 직접 이끌어 나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하공연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 꾸러기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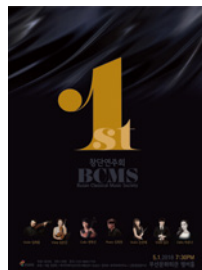
일 시 5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0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동반 관객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꾸러기음악회'.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클래식 가족음악회로,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클래식에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쾌하면서도 밝은 곡들을 들려주는 '꾸러기음악회'는 특히 공연시작 전 30분부터는 '악기놀이'를 통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를 전시, 직접 만져보며 악기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며, '악기야 놀자'를 통해서도 금관악기 공연팀의 악기를 직접 볼 수 있다. 지휘자 강신태가 지휘하는 서울뉴데이스ymphonic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생상스 '동물의 사육

BCMS(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창단연주회

일 시 5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BCMS 010-3846-7142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을 음악감독으로 창원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은진, 페스티벌 챔버, 월드 브리지 오케스트라 첼로수석으로 있는 정학선, 그리고 실력파 젊은 연주자 손은혜, 김규, 하유나로 결성된 BCMS(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창단연주회. BCMS는 앞으로 듣고 싶은 연주, 청중과 연주자가 서로 소통하고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3중주 내림나장조 D.581 슈만/피아노4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7 차이코프스키/현악6중주 라단조 작품 70

부산시립극단 2018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일 시 5월 4일(금)-5일(토) 오전 11:00, 오후 1:00, 2:30, 3:30, 4: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8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어린이극에서부터 인형극, 마술쇼, 전통 탈 만들기,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형 사까지 온가족이 함께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가 갈수록 참가 가족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오전 11:00, 오후 1:00 부산시립극단 '깨비와 떠나는 뒤죽박죽 이야기 마을' 오후 2:3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오후 3:30 부산시립무용단 '날 잡아봐라~토끼와 거북이' 오후 4: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나라'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극 '정과정'

일 시 5월 7일 월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극단 바문사 554-8209



2017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이자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 출품작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의 '정과정'.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리말 고려가요인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고려 의종 때 동래현으로 유배온 정세(鄭絃)가 자신을 다시 부른것 다는 임금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정자를 짓고 오이를 심으며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 지었으나 끝내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노래로, 현재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속 정과정곡을 현대적 국악으로 탄생시킨 '정과정'은 연극과 음악,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 연출로 관객들과 만난다. ● 작, 연출/최은영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20만원,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3074-0366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육성하여 당당한 음악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고 있는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크리미아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 출신 외국인 상임지휘자,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투어 지휘자이자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상임지휘자 박성민이 지휘하고 프랑스 파리시립교향악단 수석, 파리 음악원 수석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뱁상 루카스와 김보영, 피아노듀오 아인클랑(김지현, 임현지), 에클라 트리오(피아노 하승경, 바이올린 박주영, 첼로 김나래)가 출연, 부산의 부모님들을 위한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 외교부 공연단 선정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Hi Estonia

일 시 5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5월 9일 수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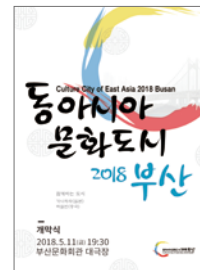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공연에 참가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12일 에스토니아 출국을 앞두고 마련하는 제151회 정기연주회 'Hi Estonia'.

5월 14일 에스토니아 콘서트홀에서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탈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동공연을 갖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에스토니아 작곡가 벨조 도르미스의 'Modal Etudes'를 비롯해 아리랑 환타지, 한국민요모음, 장구춤 등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알리는 곡들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곡가 조성은의 가곡을 들려준다.

- **잔주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팀, 김영훈(피쿠션)**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성의, 테너 최원갑**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공연

일 시 5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513-7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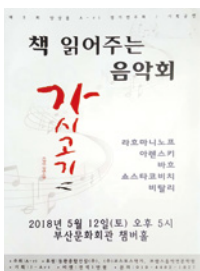
한·중·일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적 문화행사인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공연.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면서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개막공연에서는 한국의 멋과 신명을 담은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이매방 오고무'를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 개회사, 2017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인 '정과정' 무대에 이어 중국의 전통무용, 일본의 전통악기 공연 그리고 대중음악과 전통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강렬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피날레공연으로 펼쳐진다.

제5회 앙상블 A-ri 정기연주회 책 읽어주는 음악회 '가시고기'

일 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앙상블 A-ri 010-4482-1827



피아니스트 강인경을 대표로 피아니스트 류상경, 조은주, 바이올리니스트 이미원, 조나영, 첼리스트 홍영준, 황승희 등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A-ri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앙상블 '아리(A-ri)'는 우리말 '얹어'를 발음 그대로 옮겨온 말로, 성숙함으로 거듭날 아름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책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어린왕자'에 이어 아들에 대한 뜨거운 부성애를 그린 작가 조창인의 베스트셀러 '가시고기'의 주요 장면을 라흐마니노프, 아렌스키, 바흐, 쇼스타코비치, 비탈리의 음악으로 들려준다.

- **해설/박시현**

서영교 색소폰 독주회

일 시 5월 13일 일요일 오후 3: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서영교 010-6886-5896



울산대학교와 프랑스 안시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색소폰리스트 서영교 독주회.

프랑스 유학 중 2회의 독주회 및 다양한 앙상블, 실내악 음악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축제인 여름 음악, 현대 음악 축제 등에 참가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온 서영교는 안시관현악단에서 2년간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귀국 후 독주회 및 협연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구성의 솔로 및 앙상블 연주로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서영교는 인제대학교, 창원 대산고등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 **피아노/류성직**
- **트럼펫/박승훈**
- **피쿠션/양진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II

일 시 5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이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 마련하는 합동교류공연.

지난 2016년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의 교류음악회에 이어 '화려한 만남' 두 번째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창단연도가 같은 대구시립국악단과 한 무대에 선다. 지난 1984년 5월 창단한 대구시립국악단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단으로서 우리 전통음악 보존과 전승에 힘써왔다.

- **지휘/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현창(대구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배병민(대금), 최덕술(테너), 이윤경(소프라노), 이수은(가야금), 최오성 · 이주현 · 박재현 · 최정욱 (이상 사물놀이)**

부산문화회관

제7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5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www.johnlee.or.kr 신청, 추첨 후 개별통지)
문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7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박은주, 메

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김중희, 바리톤 한규원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으로 꾸며진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김중희, 바리톤 한규원
● 특별출연/용마합창단

구노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무지카비바 제28회 정기연주회 ‘탄생’

일 시 5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카비바 010-9336-2687



지난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실내악단 무지카비바가 창단 20주년과 구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탄생’.

창단 이후 실내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무지카비바는 이번 무대에서 무지카비바 20주년을 기념하는 작곡가 강영하의 헌정곡 ‘반음계적 폴카 한 하늘이 열리고...’를 비롯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구노의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찬조출연/소프라노 구민영, 작곡가 강영하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 같은 이야기

일 시 5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뛰어난 비루투오스적인 연주와 자유분방한 에너지,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으로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킴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 같은 이야기’.

화려한 테크닉과 폭발적 에너지로 ‘신들린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킴은 19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전설 니콜로 파가니니를 연상시키는 신기에 가까운 현란한 손놀림으로 ‘21세기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림스카코르스카코프/‘세헤라자데’, 교향적 모음곡 작품 35
● 지휘/최수열 ● 바이올린/로만 킴

뮤클 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강영옥 010-2307-6922



음악동호회 뮤클(뮤지컬&클래식) 산하 합창단인 뮤클합창단의 12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뮤클의 뮤지컬 노래부르기 모임에서 출발, 전문합창단으로 성장한 뮤클 합창단은 순수 음악애호가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창단 이후 매년 꾸준히 무대에 서고 있다.

지휘자 엄현섭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구민정, 엘토 박소연, 테너 조윤환, 베이스 김진용, 그리고 첼리스트 양육진의 특별출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특한 레퍼토리라 뛰어난 실력으로 합창음악의 매력을 전한다.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일 시 5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김태건 010-3879-2487

아마추어 예술인을 전문 예술인과 연결함으로써 실력향상과 더불어 클래식음악의 깊은 매력을 전하고 있는 아가페 문화 예술원이 마련하는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클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클래식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아가페 남성중창단, 아가페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남성 중창과 혼성 중창, 어린이 중창,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출연/아가페 남성 중창단, 아가페 오케스트라

부산음악사랑회 제12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5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음악사랑회 010-9692-3973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의 연주 활동과 음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부산음악사랑회의 12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7월 창립된 후 지금까지 수차례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개최해온 부산음악사랑회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가곡과 오

- 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정희, 김경숙, 김의숙, 배화자, 오옥화, 홍성희
● 테너/김장국, 정경일
● 바리톤/송은섭, 한성권 ● 베이스바리톤/손영수
● 클라리넷/윤수천
● 필로스양상블/바이올린 우소라, 정아람, 비올라 신지현, 첼로 박예리나, 플루트 유주영, 피아노 김예진

피아니스트 윤지영과 함께하는 봄날의 피아노

일 시 5월 20일 일요일 오후 2:00,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윤지영 010-3846-2279



탄탄한 아카데미즘의 바탕 위에 호소력 짙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윤지영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과정, 워싱턴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윤지영은 지난 2015년 귀국 후 활발한 활동과 함께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예고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그리그의 작품을 들려준다.

- 연주/윤지영, 정은수, 김나영, 김도형, 김현지, 김하정, 백지민, 박나현, 김찬영, 강민지, 정찬우, 안버리, 성원정, 김태린, 오수빈, 박재영

이성주와 올리버 케른의 로맨틱 소나타

일 시 5월 22일 화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스테이지원 02-780-5054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녹아있는 연주로 정평이 난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와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이 아름다운 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로맨틱한 곡으로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이화여중 재학 중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성주는 1997년 현악양상블 '조이오브스트링스'를 창단, 현재 조이오브스트링스 예술감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으며, 지난 해 뉴욕 데뷔 40주년 기념 연주회(서울, 인천, 광주, 수원, 대구)를 성공리에 마쳤다.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은 브람스 국제콩쿠르, 비엔나 베토벤 국제콩쿠르, 뮌헨 ARD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현재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5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 부조니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 리사이틀.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사인 스타인웨이가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연주자들을 선발,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21세의 젊은 나이를 뛰어넘는 섬세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세계적 권위의 부조니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반 크르판의 첫 내한무대로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은 브뤼셀에서 열린 EPTA(European Piano Teacher's Association)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후 자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5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5044-5320



지난 1990년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 단체로, 현재 피아니스트 360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매년 두차례 정기 연주회와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이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 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이번 무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연주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이화

23일 성민주, 서혜리 2인 듀오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연주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이화

레브에서 열린 비르투오시(Virtuosi) 국제피아노콩쿠르, 네덜란드 엔스헤데 국제콩쿠르, 올림 듀브 국제피아노콩쿠르 2등, 주하이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1등, 제10회 모스크바 청소년 쇼팽콩쿠르 3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는 젊은음악가협회 'Jeunesses Musicales Croatia'로부터 가장 뛰어난 크로아티아의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Ivo Vujković'상을 수상하며 그 해 '젊은 크로아티아 음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 국제아카데미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2016년에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부터 '올해의 젊은 음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 자신이 스스로 '속녀들을 위한 섬세한 작품'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아한 매력을 보여주는 '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 18'과 당시 연인이었던 클라라에 대한 로맨틱한 열정이 깃든 '환상곡 다장조 작품 17', 그리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의 대표곡인 '24개의 전주곡 작품 28' 등 낭만 가득한 피아노 명곡을 이반 크르판만의 환상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의 연주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슈만/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 18
슈만/환상곡 다장조 작품 17
쇼팽/24개의 전주곡 작품 28

여자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미국 신시네티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의 듀오 무대.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V 448
비제-앤더슨/카르네 판타지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작품 17
A.로젠블라트/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24일 듀오 연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들이 라벨, 라흐마니노프, 생상스, 스트라빈스키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명곡을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라벨/라 발스(연주/이수민, 김보은)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작품 17 중 '타란렐라'
(연주/문정옥, 박혜라)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 40(연주/박아연, 이효연)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
J.스트라우스/박쥐' 서곡 등

- 연주/이수민&김보은, 문정옥&박혜라, 박아연&이효연, 이현욱&이성애, 김미진&김미연, 서보람&장서희, 손선경&이숙진, 심하정&표세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

일 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그동안 다양한 기획으로 합창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 특히 이번 무대는 클래식 대중화 프로젝트인 JTBC의 '팬텀싱어'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로 음악회를 구성, 클래식에서부터 가곡, 뮤지컬넘버, 국악,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편곡/조율, 이은화, 정혜빈, 이소진, 문지은, 윤경미, 지혜정
- 밴드/베이스 김대희, 기타 황보승, 드럼 윤민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Beautiful Memories'**

일 시 5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유키 구라모토 부산콘서트 'Beautiful Memories'.

지난 1999년 첫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유키 구라모토는 그동안 작은 꽃, 무심히 지나치는 풍경,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형식과 선율이 그려내는 투명하고 청명한 음악적 정서로 음악을 통한 자기 휴식, 감정의 정화를 관객들에게 선사해왔다.

'뷰티풀 메모리즈(Beautiful Memories)'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유키 구라모토는 그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대표곡들을 통해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돌아본다.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오페라를 읽어주는 여자**

일 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운예술기획 010-9025-2012



풍부한 음색과 맑은 소리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 독주회.

프랑스 파리 시립음악원과 Aubervilliers La Courneuve 국립음악원을 수료하고 La Schola Cantorum에서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Jean Wiener 국립음악학교에서 D.E.M.과정을 졸업한 황미리는 Concours international musique Leopold bellan 1위, Concours de Concertos par l'Orchestre Jean Wiener 1위 등 국제 콩쿠르에 입상함으로써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Jean Wiener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실내악 연주,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다양한 음악적 교류와 깊이를 더해왔다. 황미리는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유영욱

**La Brezza di Italia
(이탈리아에서 오는 바람)**

일 시 5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5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고신대학교 990-2231



고신대학교와 이태리 베르가모 국립음악원이 상호협력 교류를 위해 마련하는 첫 번째 축하 음악회. 양교의 MOU 체결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 베르가모 국립음악원 Direttore E. Beschi 총장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고신대 동문 및 음악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축하무대를 펼친다.

- 소프라노/김나영, 김유진, 노연정
- 테너/송승민, 김상진
- 바리톤/손동철 ● 베이스/김일석
- 바이올린/조완수 ● 첼로/이재성
- 피아노/홍지혜, 유희정, 최여진, 류희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I**

일 시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세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2018년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있는 해석으로 관객들을 행복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사)고려오페라단 단장, 부산심포닉 밴드 상임지휘자, CMK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기균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김동원, 바리톤 시우민의 협연으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의 주요 아리아를 1, 2부로 나누어 들려준다.

제3회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일 시 5월 27일 일요일 오후 1:00, 6: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 010-2889-0655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0여개의 국악 동아리들로 구성된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가 마련하는 제3회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2016년 4월, 동아리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 발전에 의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창립된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는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를 열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 소속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전통국악과 한국춤, 풍물, 난타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부산예술가곡 4주년 연주회

일 시 5월 28일 월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예술가곡 010-3884-4623



조신미 대표와 함께 하는 성악 아카데미의 성인 클래스를 중심으로 노래수업을 하며 전 공자와 동호회 회원들이 매달 발표회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 예술가곡의 4주년 기념 연주회. 지난 2014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부산예술가곡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윤상운이 이끄는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부산예술가곡 회원들과 소프라노 박순정, 다올림합창단, 살롱중창단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삼도, 양미진, 김군해, 최영순, 조신미, 박순덕
- 테너/신재철, 김소태, 김종석, 안병규, 박근태
- 바리톤/이영준, 구자훈

국악 퓨전그룹 페르시안 블루 초청콘서트

일 시 5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해금주자 한나라를 리더로 김해미(25현금), 임강섭(퍼커션/타악), 정찬미(신디사이저), 김연진(보컬/판소리), 남정연(대금)으로 구성된 국악 퓨전그룹 '페르시안 블루'의 무대. 국악기인 해금이 주축이 되어 현재는 25현금, 대금, 퍼커션, 신디사이저, 보컬로 구성된 '페르시안 블루'는 지난 2013년 첫 발을 내딛은 후 국악기와 서양악기, 노래, 그림이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단체인명인 '페르시안 블루'는 페르시아 지방 도자기의 깊고 신비한 푸른빛의 색을 일컫는 말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페르시안 블루만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여왔다.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국악작곡가회 010-8523-2942



지난 2001년 3월 결성, 2002년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새로운 창작작품 발표를 통해 창작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17번째 정기연주회. 올해 무대에서는 지휘자 백규진이 지휘하는 효원국악관현악단 연주로 창작 국악관현악 및 협주곡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박현정 '랄랄라', 성기영 '기억→바람', 이은경 'Amazing grace', 백진희 '애도', 조익래 'Silk Road', 박선영 '사랑을 바라보다', 황의중 '홀스걸 호수의 별빛', 백규진 '사물놀이협주곡 ISLAND'

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댄스 유토피아(Dance Utopia)

일 시 5월 31일-6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우리의 전통춤을 역동적이면서도 신명나는 춤사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전통춤 전체를 우리네 삶으로, 개별 레퍼토리를 인간 개체로 치환시켜 구성한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춤의 완전체, 댄스 유토피아'라는 테마로 각 춤이 지닌 춤의 원형적 질료는 안무자의 시선에 새로운 숨을 쉬며 그 호흡은 다른 춤의 에너지에 부딪혀 개성과 조화가 어우러지는 춤의 유토피아를 선사한다.

- 안무/김용철(예술감독)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악 초청연주회

일 시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강림문화재단 637-5678, 527-0288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강림문화재단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악 초청연주회. 2016 제41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밀양초등학교 백천관악단을 비롯해 백천밀양관악단, 바리톤 박대용, 세종고중창단이 출연, 흥겨운 관악연주와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반 맥코이/아프리카 심포니
웰레스/인스턴트 콘서트
올리바도티/장미의 축전
이와이/수자 마치 카니발 등 수곡

손은혜, 김은정 듀오 리사이틀

일 시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김은정 010-2802-167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앙상블 Art-O, (사)The Soloists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와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정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라벨/소나티네
드뷔시/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사단조 L 140
쇼송/피아노와 바이올린, 현악4중주를 위한 협주곡
라장조 작품 21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2일(645회) 김근혜 첼로 독주회
 전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트리오 레자미 멤버, 서울 솔리스트 앙상블 소사이어티 수석로 있는 첼리스트 김근혜 독주회.
 한양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석사,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근혜는 대구방송(TBC) 음악콩쿠르 전체대상 및 문화장관부상, 바로크 음악콩쿠르 1위, 서울 내셔널 콩쿠르 1위, 목정문화재단 문화예술상 청년예술특별상을 수상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소나타 제3번 가장조
 포퍼/헝가리 광시곡 작품 68
 브람스/첼로소나타 제2번 가장조 작품 99

● 피아노/김미현



9일(646회) (사)디 첼리스트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지난 2015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부산 최초의 첼로 앙상블 (사)디 첼리스트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첼리스트’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첼리스트 정준수를 리더로 최창훈, 신정성, 우리라, 조혜리, 김무늬, 오현진, 이민지, 김기량, 김하늘, 박예리나 등 차세대 첼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16일(647회) 양은정&최보린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감각이 배어있는 감성과 따뜻한 음색으로 울림있는 연주를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은정과 청중들에게 서정적으로 따뜻한 음색과 깊은 울림을 전하고 싶은 바이올리니스트 최보린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양은정과 최보린은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 TIM 스트링 콰르텟 리더 및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르클레르/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5번 작품 3
 사라사테/나바라 작품 33
 쇼스타코비치/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5개의 소품집
 슈포어/듀오 콘체르탄테 제2번 라장조 작품 67

23일(648회) ARISO 해설이 있는 음악회
 소프라노 강은지, 이주현, 손현아, 메조소프라노 전하라, 테너 안진혁, 바리톤 곽동민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여행.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푸치니 ‘라보엠’, 번스타인 ‘캔디드’, 구노 ‘파우스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피아노/류희은, 김효정
 ● 협연/황선지(첼로), 뮤&오 베리타



30일(649회) 박필은, 김진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박필은, 김진희의 듀오무대.
 박필은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피아노 실내악과정, 윈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반주연구회,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도의 이면 vol.2 디지털싱글음반 발매기념 김현희 해금 ‘고도의 裏面 V’

일 시 5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김현희 010-3994-4674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해금연주가 김현희의 현대음악시리즈 ‘고도의 이면裏面’ 그 다섯 번째 시리즈.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현희는 현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있으며 서울대학교, 영인대학교에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고도의 裏面’ 시리즈는 전통악기인 해금을 통해 풀어내는 현대음악으로, 김현희 특유의 논리적 해석과 감성이 담긴 정교한 연주로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앨범수록곡인 Chihchun Chi-sun Lee 작곡의 ‘奚、戲 Reciprocity for haegeum and piano’, 이예진의 ‘해금과 대금을 위한 두 개의 숨’을 비롯 윤이상, 이건용, 이태원의 해금독주곡을 들려준다.

● 대금/정소희 ● 피아노/이지혜 ● 사회/진윤경

마이스토리와 청춘 희망 나눔 음악회

일 시 5월 2일 수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 781-5412, 010-7666-3024



창립 5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심리상담센터 ‘마이스토리’에서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하는 희망 나눔 음악회.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사회의 기둥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며 마련한 이번 무대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멤버, 프랑스 파리 Selmer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임수의 클라리넷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조가희, 시명진의 피아노 연주, 피아니스트 김란, 바이올리니스트 고아라, 첼리스트 박예리나로 구성된 피아노트리오의 앙상블 연주에 이어 성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국제콩쿠르 우승과 함께 다수 연주 경력을 갖춘 테너 김태모, 은형기, 바리톤 조승완, 베이스 주상민으로 구성된 ‘더보이스’의 무대가 펼쳐진다.

C.I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스크린 콘서트

일 시 5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C.I윈드오케스트라 010-2771-4711



부산, 경남지역 음악대학 전공자들로 결성된 후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윈드 오케스트라만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C.I(Constant Innovation)윈드오케스트라의 4번째 정기연주회.
 C.I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발전적으로 변화, 성장 하되 음악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라는 가치 아래 정기연주회, 봉사 활동,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관악을 알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민희, 바리톤 김경환의 협연으로 미녀와 야수, 오페라의 유령, 호두까기 인형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그에 어울리는 스크린 영상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들려준다.

● 지휘/박정우
 ● 협연/소프라노 이민희, 바리톤 김경환

코리안 트럼펫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아마추어 연주자들부터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로 결성된 국내 최대 트럼펫 앙상블인 코리안 트럼펫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100트럼펫 앙상블에서 시작한 후 2016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된 코리안 트럼펫 앙상블은 대한민국 최초 100인조 창단 연주기록을 가진 트럼펫 앙상블로, 소편성의 20인조 앙상블에서부터 최대 100인조까지도 편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트럼펫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코리안 트럼펫 앙상블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주관 경연대회 앙상블 부문에 출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지휘/김우일 ● 단장/양형호
- 협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모차르트 렉처 콘서트

일 시 5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무동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프랑스 뽀와시음악원 Superieur과정, 프랑스 베르사이유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비올리스트 김가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아카데미를 수료한 피아니스트 이해경으로 구성된 솜블리 트리오가 마련하는 렉처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아, 어머님께 말씀 드리지 주제를 의한 변주곡(작은별 변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피아노와 비올라 클라리넷을 위한 3중주곡 등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며진다.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브런치

일 시 5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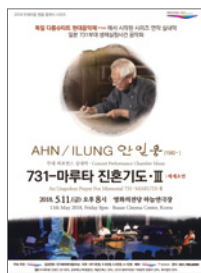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나서 영화의 전당 마티네콘서트.

‘무용 Danc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5월 마티네콘서트에서는 ‘현대무용의 거장’이라 불리는 독일의 현대무용가 피나 바우쉬의 춤과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음악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영감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2012년 창단된 후 국내 최고의 앙상블로 발돋움하고 있는 IPB의 연주로 피나 바우쉬의 작품세계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피나(Pina, 2011)’, ‘댄싱드림즈(Dancing Dreams, 2009)’에 등장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2018 두레라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2 작곡가 안일웅 ‘731-마루타 진혼기도·III’

일 시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TFNM)에서 시작된 연작 시리즈 대하음악(大河音樂)무대 퍼포먼스 실내악 ‘731-마루타 진혼기도’ 세 번째 무대 ‘가려진 진실들’.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동양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안일웅은 다름슈타트에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올해 ‘독일 드레스덴 2018’에서 동유럽 인물로 위촉되던 관행을 깨고 동양인 최초 작곡가로 위촉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일본의 731부대의 생체실험사건을 소재로 일제강점기 희생자의 넋을 기는 연작 시리즈 ‘731-마루타 진혼기도’는 2015년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그 해 영화의전당 ‘2015 두레라움 실내악 축제’에서 2번째 시리즈 ‘731-마루타 진혼기도-II’를 세계 초연 무대로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2018 부산음악축제

일 시 5월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음악협회 634-1295, www.bmasso.or.kr



첫날인 9일에는 2018년 음악대학 졸업생 중 각 대학에서 선발된 유망자들의 협연무대로 마련되는 ‘신인음악회’에 이어 10일에는 다채로운 실내악 무대를 선사한다.

9일(수) 대공연장
 2018 신인음악회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지휘/김영수)

- 소프라노/최유정, 박주영, 천예인 ● 바리톤/김경환
- 피아노/최유정, 최우림, 류지수
- 플루트/이아진 ● 타악기/박찬식

10일(목) 소공연장 2018 앙상블의 밤

- 출연/팝스&퍼커션, JM앙상블, 호산가야금앙상블, 부산플루트앙상블, 부산 챔버뮤직소사이어티, 뮤즈앙상블, 아우라목관5중주

제45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소통 콘서트

일 시 5월 14일-15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010-5773-919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의 45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두차례 피아노페스티벌과 우수 신인 피아노 콩쿠르 등을 가져오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은 이번 무대에서 ‘소통’을 주제로 첫날인 14일에는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 콘서트’, 15일에는 ‘스프링 낭만 콘서트’를 펼친다.

- 14일 연주/김정권&한상민, 이정현&정현경, 이영희, 조영은, 정아연, 조혜영, 차미령
- 15일 연주/이문숙&원영아, 신애정&이윤정, 최민경&임효진, 정광민&변경선, 박환희&정년경, 최지은&조혜리, 신주옥&허원빈, 송지은&황정미, 강남길&최혜련, 금찬이&고은경, 장진이&홍지혜

기타공연장

서영희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서영희 010-3247-6894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제임버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헤세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서영희는 대학시절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 오디션에 합격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우수연주자들의 등용문인 신인음악회, MBC목요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 서기도 했다. 서영희는 마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소나타 제21번 마단조 K.304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안 모음곡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8
● 피아노/서영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마법의 클래식 이야기'

일 시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치는 특별한 무대.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위해 작곡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과 린스카-코르사코프 특유의 풍부한 색채감과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손꼽히는 교향적 모음곡 작품 35 '세헤라자데'를 들려준다. 총 5곡으로 이루어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중 제1번은 5곡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으로, 전 세계에서 즐겨 연주되고 있으며, '아라비안 나이트'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작곡된 린스카-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는 호화로운 멜로디와 더불어 광대하고도 흡입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5회 프롬나드 콘서트

일 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며 부산 경제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프롬나드 콘서트' 감사의 계절 5월을 맞아 음악에 사랑을 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사랑의 슬픔
엘가/사랑의 인사 등 수곡
● 예술감독/오충근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50회 정기연주회
2018 가정의 달 가족음악회

일 시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010-2323-6589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가족음악회.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홍성택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전체 대상, 부산대학교 콩쿠르 중고등부 1위 등 화려한 수상경력으로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민준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1번'에 이어 피아니스트 박은정, 유영욱, 그리고 배우 이창원의 구연으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 지휘, 예술감독/홍성택
● 피아노/김민준, 박은정, 유영욱
● 구연/배우 이창원

2018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봄의 향기

일 시 5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인호 010-4554-7777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봄 마련하는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2018년 무대. 올해로 9번째를 맞는 2017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에서는 전문연주자들을 비롯해 플루트를 사랑하는 아마추어연주자들로 구성된 메이 플루트 오케스트라가 클래식에서부터 팝, 재즈, 드라마, 영화 OST, 가요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에 친숙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봄의 노래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베르탱고, 아일랜드의 소녀, 바디느리, 날 울게 하소서, 파리스 파리스 등 수곡
● 음악감독 겸 지휘/김인호

제6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말러, 다시 태어나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1번 '거인(Titan)'

일 시 5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최근 대공연장의 건축음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을숙도문화회관이 2018년 첫 기획공연으로 선보이는 제6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특히 말러 서거일로부터 107년이 지난 2018년 5월 18일, 교향곡 제1번 '거인'으로 3년간의 역사적인 말러 전곡 연주 대장정에 들어가는 을숙도문화회관은 '구스타프 말러 전곡연주'를 통해 '새로운 시대, 혁신적 도전'으로 부산 음악계에 새로운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임성혁이 지휘하는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페라로서의 거의 상연되지 않지만 서곡으로 유명한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과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Titan)'을 들려준다.

가장 대공연장의 건축음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을숙도문화회관이 2018년 첫 기획공연으로 선보이는 제6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특히 말러 서거일로부터 107년이 지난 2018년 5월 18일, 교향곡 제1번 '거인'으로 3년간의 역사적인 말러 전곡 연주 대장정에 들어가는 을숙도문화회관은 '구스타프 말러 전곡연주'를 통해 '새로운 시대, 혁신적 도전'으로 부산 음악계에 새로운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임성혁이 지휘하는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페라로서의 거의 상연되지 않지만 서곡으로 유명한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과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Titan)'을 들려준다.

제8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일 시 5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 지역의 소년소녀합창단이 모여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노래하며 우정의 향연을 펼치는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출연

기장리틀싱어즈&금샘소년소녀합창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동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KBS부산어린이합창단

● 사회/박은승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최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30~40대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등 전문 연주자 8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08년 9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된 부산시티오케스트라로 활동하다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그 해 창단연주회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로 진행하는 등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지휘자 박성은이 지휘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 칼빈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테너 조윤환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3월 15일(목)-6월 17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모든 연인들을 사로잡는 리얼감각 로맨틱 코미디극.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전 여자친구 시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고, 지후는 자신이 과거 어떤 남자친구였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연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두근거려던 첫 만남, 한 눈에 반한 그녀와의 데이트, 그리고 달콤했던 연애를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기던 지후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못된 '남친'을 넘어서 '쓰레기'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그 순간 시연의 기억이 돌아오는데...

국민연극 라이어1탄

일 시 3월 16일(금)-5월 13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문화가 있는날 5시, 8시 (월요일 휴관)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레이 쿨리의 대표작 '라이어' 1탄. 마음 약한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그린 연극 '라이어'는 지난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35,000회 공연, 50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국민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웬물던에는 메리, 스트리트행에는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 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그의 완벽한 일정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리기 시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상황은 더욱 더 꼬여만 가는데...

연극 | Play

극단 새벽 창작부조리극 옥탑방 두 여자

일 시 3월 8일(목)-5월 19일(일) 매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17세 이상 관람)
문 의 극단 새벽 245-5919



지난해 11월 초연무대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낯설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극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호평을 받았던 극단 새벽 '옥탑방 두 여자'.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연극인공동체 극단 새벽을 창단하고 지난 34년간 관객들과 부대끼며 달려온 연출가 이성민이 세상과 연극작업에 대해 품은 회의감에서 출발, 창작한 '옥탑방 두 여자'는 두 연극배우의 하루에 빚대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무감과 무의미함을 마주하는 한편,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진보를 꿈꾸는 사회과학적 담론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철학적 연극이다.

● 작,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연극 '쌈이 필요해'

일 시 3월 23일(금)-5월 27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수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구 AN아트홀 공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영화속의 로맨스는 잊어라, 리얼리티 현실 반영 로맨스극 '쌈이 필요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모든 게 잘난, 그러나 연애는 귀찮은 연애고자 이선균 팀장, 잘나고 똑똑해서 안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김정화 편집장, 이들 앞에 신입사원 이나영과 김석원이 나타나면서 잊고 있었던 연애감정이 싹트는데... 잡지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 '쌈이 필요해'는 연애 불능자의 연애극복기를 통해 전정터 같은 사회에서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온 리얼 현실연애를 그린 로맨스극이다.

기타공연장

2018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호비아! 챌린지 꿈나무를 구해줘!

일 시 5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더욱 화려해진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만나는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2018 호비쇼'.
지난 2010년 시즌 1부터 시작해 매 공연마다 큰 사랑을 받았던 호비쇼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재미는 물론 인성, 사회성, 생활습관 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가정의달 특집 점프 JUMP-부산

일 시 5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1층) 6만6천원, S석(2층) 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지난 2003년 초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 '점프' 부산공연.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택견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코믹 마살아트 퍼포먼스 '점프'는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영혼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생생한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로 대사없이 관객들에게 전한다.

2018 금정어린이세상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일 시 5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EBS 최고의 화제작인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이는 재난안전 뮤지컬로, 실감나는 재난상황과 그에 맞서는 파이어로보들의 활약상이 화려한 특수효과 속에 펼쳐진다.

주인공인 이안과 태오, 세나는 평범한 중학생이다. 하지만 7년 전 화재로 부모를 잃은 세나의 할아버지 정박사가 개발한 강화슈트 로봇과 함께라면 메가시티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파이어로보 대원으로 변신한다. 이들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바이크 구조슈트 '피닉스', 탑승형 로봇 '허큘리스',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카루스'와 함께 일상적인 화재에서 불룩버스터 급 사고까지 처리하며 희생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어린이 창작뮤지컬 '매직 쿡 스쿨'

일 시 5월 18일 금요일 오후 5:30,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SL엔터테인먼트 011-5320-2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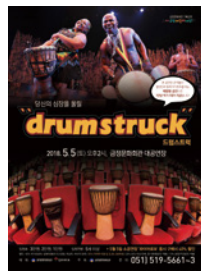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뮤지컬팀을 운영하고 있는 SL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어린이 창작뮤지컬 '매직 쿡 스쿨'.
'매직 쿡 스쿨'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다같이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않은 아이들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두 개의 음식을 만들기로 하는데...

- 예술감독/신린
● 출연/장도연, 유지원, 양유빈, 김이현, 박주현, 송다현, 김지후, 박정원 외

2018 금정어린이세상 드럼스트럭

일 시 5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5세 이상 관람가능)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감각적 연출로 유명한 예술감독 워렌 리버먼과 캐시 조와인이 제작한 타악 퍼포먼스 쇼 '드럼스트럭'.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첫선을 보인 후 아프리카 특유의 비트와 연기자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2005년, 뉴욕 타임스퀘어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면서 18개월 간 상설공연을 진행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3개 대륙에 이르는 투어에서 전 공연 매진을 기록했으며, 2008년부터 5년 연속 진행된 일본 전국투어에서도 전 공연 매진 사례를 이뤘다.
특히 이번 무대는 무대와 객석,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터랙티브 공연으로, 모든 관객들이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즐길 수 있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일 시 5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3:00, 6:00, 20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문의 (주)문화락 1600-1602



부인과 사별한지 20년, 사식들의 무관심 속에 외롭게 살던 '박동만'은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있던 '이점순'의 집에 세들어 살게 된다. 남편과 30년전에 사별하고 무시당할까봐 일부러 욕쟁이 할머니가 되었던 이점순은 박동만을 만난 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을 되찾는다. 한 지붕 밑의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 결국 같이 살기로 약속하나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은 잠시 뿐, 이점순은 박동만을 홀로 두고 떠난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아온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작/위성신 ● 연출/김만중
● 출연/송진경, 우명희, 박찬하

창작 뮤지컬 '헬로키티의 세가지선물'

일 시 5월 19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0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인터넷 예매시 5월 7일까지 55%, 19일까지 50% 할인)
문의 마당세상 02-583-2407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헬로키티의 세가지 선물'.

마법의 세계가 사악한 얼음의 마법사 '데모니크'에게 잠식되어가면서 지구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소미 대신 끌려간 엄마는 데모니크의 저주에 걸려 얼음동상이 된다. 과연 우리의 친구 헬로키티는 마법의 힘을 지닌 '세가지 선물'로 얼음의 마법사 데모니크를 물리치고 소미를 도와 사랑하는 엄마를 마법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헬로키티와 친구들이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신비한 영상과 함께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펼쳐진다.

- 작/이은총 ● 연출/김순균

2018년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5월 22일 화요일 오후 2:00, 5:00, 23일 오전 11:00, 오후 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23일 공연은 20인 이상 단체관람시 7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올해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된 김옥련발레단이 마련하는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김옥련발레단이 매년 5월 선보이는 감동과 교훈이 있는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은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의 동화를 창작발레로 탄생시킨 작품으로, 어린이를 위한 발레공연이 전무했던 2002년, 차별화된 창작가족발레로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무대에 오르며 국내 최초, 최장기 가족발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 안무/김옥련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일 시 5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OP석·VIP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50만원, A석 4만원
문의 예명기획 1644-3901



고집불통 할아버지 앙리와 자유를 꿈꾸는 대학생 콘스탄스의 갈등과 소통, 성장을 그린 연극.

프랑스 극작가 이반 칼베라크의 작품으로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후 2015년 바리에르 재단 희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앙리할아버지와 나'는 30년 전 아내를 잃고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사는 앙리의 집에 발랄한 대학생 콘스탄스가 룸메이트로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통해 세대간, 가족간의 갈등과 청년 실업 등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전 세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 출연/이순재, 박소담, 이도엽, 김희희(26일), 신규, 김슬기, 조달환, 강지원(27일)

영화 | Movie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적과 흑(The Red and The Black)

일 시 5월 15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www.bsart.or.kr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서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5월에는 탄광촌 출신 소년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끼와 재능을 살려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빌리 엘리어트'(상영시간 110분, 12세 관람가, 스티븐 달드리 감독, 제이미 벨 출연)를 상영한다.

무용 | Dance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이태상 프로젝트 '新 잡종블루스'

일 시 5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6세 이상 관람, 전화예약 필수)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해학과 위트있는 연출과 안무, 탄탄한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묘사의 탁월함으로 공연예술의 대중성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무가 이태성의 댄스컬 '新 잡종블루스'.

다방과 카페가 처음 생겨났던 1920~1930년대를 작품 모티브로,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쉽게 만나면서도 모르는 척 흘려버리는 현대인의 이중성과 과대망상, 모순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창작한 '新 잡종블루스'는 그동안 안무가 이태성이 보여주었던 특유의 경쾌하고 스포티한 포즈감과 신체성의 사용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채 우스꽝스러움으로 가득찬 인간들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려낸다.

- 안무 및 연출/이태상

2018 두레라움 토요일아외콘서트 필름콘서트 by 신나는섬

일 시 5월 19일 토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무료(주차비 유료)
문의 영화의전당



코미디 무성영화의 거장 버스터 키튼 감독의 영화 '항해자(The Navigator)'와 신나는 집시밴드 '신나는섬'의 연주가 어우러지는 2018 두레라움 토요일아외콘서트.

이번 무대에서 집시밴드 '신나는섬'은 영화 '항해자'의 영화장면과 내용에 맞춰 편곡, 구성된 음악들을 약 1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하며 영화음악의 원초적인 모습을 재현한다. 집시바이올린, 아코디언, 집시기타와 다양한 퍼커션을 들고 고전의상을 입은 신나는섬의 연주는 흑백화면을 마추는 관객들을 1920년대로 초대한다.

기타공연장

행사 | Event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최백호의 청춘콘서트 '회귀:回歸'

일 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와 수많은 콜라보레이션... 이번 무대에서는 최백호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뿜어내는 목직한 그의 목소리로 메말라 있던 감성을 예집과 촉촉한 봄비같이 청춘의 추억을 되살려준다.

2018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일 시 5월 2일(수)-20일(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소극장
입장료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뮤지컬 콘서트 '바보' R석 8만원, S석 6만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Hi Estonia' 전석 2천원)
문 의 (사)극단 맥 625-2117



거리공연예술이 드문 부산에 새로운 형태의 공연축제를 열기 위해... 극단 맥의 가족뮤지컬 '유리구두'를 시작으로 클래식, 무용, 합창,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극단 맥 가족뮤지컬 '유리구두'
2일(수)-4일(금) 오전 10:30, 11:30(예약단체), 5일(토) 오전 11:00 대극장
w.무용단 '달과 달 사이'
6일(일) 오후 4:00 대극장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과 가족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22일 휴강)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 의 정두환 011-574-0423

1일(653회) 음악으로 하나되는 음악가족들 1
8일(654회) 음악으로 하나되는 음악가족들 2
15일(655회) 영화속 음악가족 이야기.
29일(656회) 이달의 책임기 '땅의 예찬'(한병철, 김명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3개월 12만원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강좌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음악 해설 감상회.

JOA 레이디스 싱어즈 'Colorful JOA'
7일(월) 오후 8:00 대극장
교육극단 꼭두 인형극 '양논이의 토끼 이야기'
7일(월)-10일(목) 오전 11:00 소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Hi Estonia'

9일(수) 오후 8:00 대극장
극단 맥 'BINARI 엄마의 기억'
11일(금) 오후 8:00 대극장
클래식 라디오 '클래식 라디오와 함께하는 Love Concert 1'
12일(토) 오후 4:00 소극장
프랑스 카르디에 리브르 프로덕션 마임극 'Imagine - toi 상상속으로'
13일(일) 오후 4:00, 14일(월) 오후 8:00 대극장
벨기에 카리아티드 극단 인형극 '레미제라블'
15(화)-16일(수) 오후 8:00 대극장
조관우 뮤지컬 콘서트 '바보'
18일(금) 오후 8:00, 19일(토) 오후 4:00, 8:00 대극장
다락예술단 '多樂'
20일(일) 오후 4:00 대극장



부산시네아카데미 · 시네바움 5월 아카데미

일 시 1일(화), 7일(월), 8일(화), 14일(월), 14일(월), 15일(화), 21일(월), 23일(수), 28일(월), 29일(화)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1일(화) 오후 7:30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7)
· 강사/진경옥(동명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7일(월) 오후 7:00 페미니즘 클럽(1)
· 강사/임은주(문화기획자, 작가)
8일(화) 오후 7:30 인문콘서트(2)
· 강사/박기철(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4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만나는 일본의 미학(6)
· 강사/안수현(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5일(화) 오후 7:30 스페인, 포르투갈 예술기행(2)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21일(월) 광근수의 오페라 온 스테이지(1)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23일(수) 10:30 랜선으로 떠나는 문화산책(4)
· 강사/봄비(카프카의 밤 저녁지기)
28일(월) 오후 7:30 스티븐 호킹을 추억하며
· 강사/이창환(부산대 물리학과교수)
29일(화) 오후 7:30 예술과 사유(17)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내서재 대표)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5월 8일(화), 14일(월), 18일(금), 21일(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8일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9강 '차이콥스키 인생과 작품세계 II' 러시아 음악사상 최초의 글로벌 스타이자 굴곡진 삶을 살았던 차이콥스키 생애의 후반부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광근수

의 맛있는 클래식.
14일(월) 발레가 있는 무대 제5강 '발레이야기 5:신교전주의 발레'
· 강사/노영재(무용학 박사)
18일(금)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4강 '지중해 크루즈 여행'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1일(일) 색이 삶을 말하다 제15강 '세상속의 색, 그 색속의 나, 패션으로 말하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5월 22일(화)-6월 8일(금)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051)631-1377
www.artpusan.or.kr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년 봄 마련하는 2018 부산청소년예술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미술협회 등 12개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는 5월 26일 부산무용협회가 주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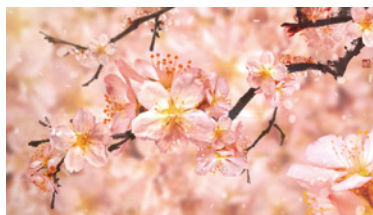
‘청소년무용예술제’를 개막공연으로 6월 8일까지 공연, 경연, 전시 등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로 펼쳐진다.

전시 | Display

Dare to be true: 진리를 위하여 이이남展

일 시 4월 5일(목)-5월 20일(일) 서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전관

문의 서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디지털 매체와 접목한 실험적 작업을 통해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품전.

그동안 정치와 운동, 이미지와 영상, 디지털과 아날로그, 서양과 동양, 고전과 현대 등 대비되는 요소들을 충돌시키며 고정된 사유를 깨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예술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이남은 이번 전시에서 작품 형식에 대한 실험 외에도 현대의 정의실현을 향한 작가의 가치와 발언이 엿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5월 19일(토), 26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학생사진공모전

5월 22일(화)-26일(토)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청소년연극제

5월 23일(수)-24일(토), 5월 28일(월)-6월 1일(금), 6월 5일(화), 6월 7일(목)-8일(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소년차문화축제

5월 25일(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소년무용예술제

5월 26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5월 27일(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회의실

학생그림공모전

5월 28일(월)-6월 2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6월 2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 시낭송대회

6월 2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6월 2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꽃밭만들기대회

6월 2일(토)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청소년음악제

6월 3일(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 참견錄

2018 브뤼노 레끼야르 단편들

일 시 3월 10일(토)-5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nmuseum.kr

필립 코네(Philippe Cognée) 개인전

과밀도, 현실의 포화

일 시 4월 11일(수)-5월 27일(일) 조현화랑

문의 조현화랑 747-8853

남도의 목향전

小痴一家와 그 맥의 흐름

일 시 5월 1일(화)-5월 21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아미티에성악연구회 ‘PASSIONE(열정)’

일 시 5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www.bsart.or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5월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대학교 출신 성악가들로 구성된 아미티에성악연구회가 ‘열정(PASSIONE)’이라는 부제로 성악과 연극 등 장르간 클라보레이션으로 완성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Vegetation展

일 시 3월 10일(토)-5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nmuseum.kr

서동완, 신누리 2人展

일 시 5월 15일(화)-6월 15일(금) 갤러리 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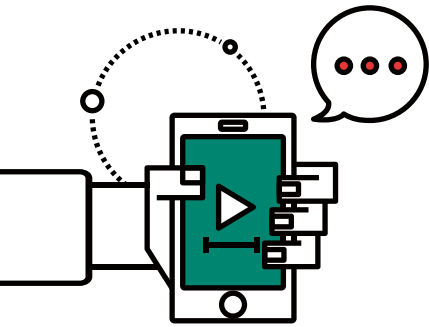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오월의 향연’展

일 시 5월 23일(수)-5월 31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여행하다



정수현

blog.naver.com/suhyeonnn89

부산문화회관에서 이틀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가 열렸다.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과 명성을 가진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클래식에 문외한인 나는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 쉽고 부담 없이 클래식을 감상해보기로 했다. 프로그램 첫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그리고 각 협주곡의 피아니스트들의 협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1~3번이 차례로 대극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공연 전 마치 여행을 준비하듯 베토벤의 음악을 미리 듣고, 베토벤의 일생을 그린 영화 ‘불멸의 연인’을 보며 음악가 베토벤에 한걸음 다가서려고 했다. “음악은 작곡가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청중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음악은 최면과 같아.” 극 중 베토

벤의 대사가 떠올랐다. 늘 변화를 갈망하던 베토벤의 예술세계가 각 악장에 잘 묻어나는 피아노협주곡이었기에 난 그의 말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최면처럼 그의 음악 속에 빠져들었다. 피아노협주곡 제3번에선 베토벤 특유의 강렬한 피아노와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대화가 오갔고, 곡이 끝난 후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모든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연주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감상했다. 마치 잠시 기분 좋은 여행을 한 기분이었다. 좋은 공연으로 문화감성 충만하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을 잘 몰랐던 나에게 긴 여운으로 남아, 다양한 클래식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다.

클래식 음악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봄



이지선

jls031245.blog.me

내가 관람한 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1부에 멘델스존의 ‘봄노래’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리고 2부에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곡에 대한 사전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보러 갔던 탓에 전혀 모르는 곡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연주되었던 멘델스존의 ‘봄노래’를 듣자마자 ‘아, 이 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의 컬러링으로도 자주 들어서인지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곡은 멘델스존의 곡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으로 익숙한 선율과 함께 물 흐르듯 봄의 느낌을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모차르트의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연주자의 기교와 리듬을 타는 몸짓, 그리고 클라리넷

만의 독보적인 부드러우면서도 깨끗한 음색을 어는 곡보다 잘 뽐낼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부의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은 다소 긴 편이었지만, 역동적인 리듬과 함께 생명력과 힘이 넘치는 연주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의 느낌과 정말 잘 맞는 곡이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다. 평소에 음원으로 클래식을 즐겨 듣는 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연장에 가보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연주되는 곡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이렇게 공연장에서만 직접 느낄 수 있는 소리와 울림은 음원과과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소름도 돋았다. 나처럼 곡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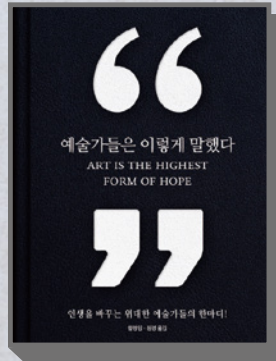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건축가 -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작품과 말

루스 펠터슨 외 지음 / 까치 / 464p / 5만원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I. M. 페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요른 웃손), 베이징 국가 경기장(에르조 그와 드 뉘롱), 조르주 폼피두 센터(리처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단케 겐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케빈 로치) 등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작품이다. 그 사실만 보아도, 그들이 현대 건축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 2016년 수상자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짓기도 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세계 건축계를 주도하는 그들은 이처럼 건축의 지평을 확장하고, 건축에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 책은 2017년 수상자 라파엘 아라다, 카르메 피헨, 라몬 빌랄타를 출발점으로 하여 1979년 제1회 수상자 필립 존슨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건축가들의 말과 그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건축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 자료들과 함께 현대 건축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주는 책이다.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함정임 지음 / 마로니에북스 / 336p / 2만 3천원

“작품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일을 계속해야 한다. -빈센트 반 고흐” “나는 예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술가를 믿는다. -마르셀 뒤샹”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그린다. -잭슨 폴록” “성공은 위험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복제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파블로 피카소” 이 책에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솔직한 말과 지혜가 담겨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옛 거장들부터 잭슨 폴록, 앤디 워홀, 에드워드 호퍼 등 현대 화가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318명의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알려진 유명한 명언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멋지게 말하려고 꾸민 미사여구로 가득한 말이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생생하고 살아 숨 쉬는 말들이라 더 깊은 울림을 준다. 다정한 충고로, 또 강력한 조언으로, 때로는 가장 내밀한 고백으로 다가온다. 어느 페이지든 손 가는 대로 펼치면 특별한 한 마디가 기다리고 있다.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모두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왕가위 - 영화에 매혹되는 순간

왕가위, 존 파워스 지음 / 씨네21북스 / 304p / 4만 8천원

198,90년대 홍콩 영화 뉴웨이브를 이끌었으며 특유의 영상 미학과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해온 왕가위 감독의 인터뷰집. 왕가위가 영화평론가 존 파워스와 자신의 영화와 인생에 대해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왕가위의 필모그라피 전체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각 영화의 탄생 배경과 제작 코멘터리, 미공개 스틸 컷을 대거 수록한 ‘왕가위 종합 안내서’ 같은 책이다. 상하이 출신 이민자로 홍콩에 정착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기까지 작가로 활동하던 시절 등 왕가위 영화 세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전적인 부분도 담담하게 들려준다. 거부당한 사랑, 굴절된 기억 등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테마에 대한 생각부터 영화 제작 방식도 털어놓았다. 도시 풍경 속 억압된 인간의 욕망, 소외, 기억 그리고 고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농밀하고 우울하며 관능적인 스타일로 그려낸 왕가위 영화의 이해를 돕는다.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유명한 왕가위 영화의 희귀한 화보들과 장국영, 장만옥, 장쯔이 등 함께 한 배우들의 250여 장에 달하는 미공개 스틸 컷도 수록됐다. 이 사진들은 영화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해외공연 활발

교향악단_2018 후쿠야마 뮤직 페스티벌
소년소녀합창단_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공연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해외에서 다양한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후쿠야마에서 열리는 '2018 후쿠야마 뮤직페스티벌'에 초청받아 4월 30일 후쿠야마로 출국한다. 후쿠야마의 상징인 장미가 아름답게 피는 5월에 열리는 이번 '2018 후쿠야마 뮤직페스티벌'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페스티벌 기간인 사흘 동안 후쿠야마 '리드 앤 로즈'에서 3차례 공연을 갖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이탈리아의 플루티스트 마틸데 칼데리니, 일본의 피아니스트 마사히로 사이토, 일본의 전통 악기인 고토 연주자 토모요 마쓰시타, 그리고 후쿠야마 시민합창단, 후쿠야마 유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축제에 어울리는 클래식 명곡으로 후쿠야마 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연단 해외파견 공모에 선정되어 5월 14일 에스토니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공연 무대에 선다.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탈린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동무대를 꾸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미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특히 에스토니아가 '노래하는 민족', '합창의 나라'로 유명한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뒷날인 5월 15일에는 탈린의 날을 맞아 자유의 광장(Freedom Square)에서 특별공연과 핀란드대사관이 주최하는 케이팝(K-pop)페스티벌에서 축하공연을 가지며, 17일에는 탈린과 인접한 핀란드 헬싱키의 암석교회에서 카운터 테너 정민호와 함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의 특별한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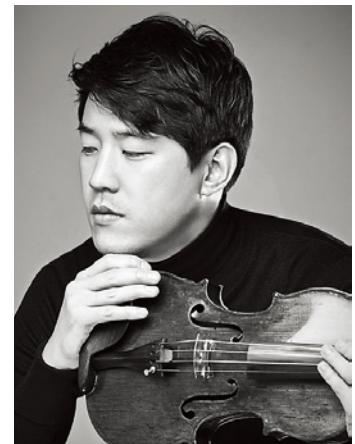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입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 선임

대전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국·시립예술단 객원악장으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입악장에 선임됐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원, 파리국립고등음악원(Formation Supérieur 과정), 독일 베를린국립음악대학원(Konzertexamen 과정)을 졸업한 임흥균은 일찍이 한국일보콩쿠르 2위 입상을 시작으로 음악춘추, 음악저널, 국민일보콩쿠르 수상 및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콩쿠르에서 전체대상을 수상했으며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생시절, 마에스트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직접 참여한 오디션에서 파리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으로 뽑혀 2005-2006 시즌에 참여하기도 했다. 임흥균은 2011년 독일 베를린 현지 오디션을 통해 진행된 일본 효고 퍼포밍 아트센터 오케스트라(Hyogo Performing Arts

Center Orchestra)에 발탁되어 2011-2014 시즌동안 일본 전역의 세계적인 콘서트홀에서의 연주투어는 물론 이 시기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지휘자와 솔리스트를 만나며 음악활동의 깊이를 더하기도 했다.

2015년 귀국 후 금호아트홀 독주회를 시작으로 경기필하모닉, 원주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성남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한 임흥균은 현재 (사)한국페스티벌양상블 단원, 클래식안양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이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 후원회원 가족 7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4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후원회 창립 후 회원들 간의 교류를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최수기 후원회 회장을 비롯해 변원탄 양산병원 이사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강남주 전 부경대학교 총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등 후원회원들과 가족들, 박인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공연에 앞서 윤영기 후원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후원회원의 이름이 적힌 명예의 전당 현판식에 이어 지난 1월 17일 창립

총회를 통해 전달된 후원금으로 구매한 29인승 셔틀버스에 대한 전달식이 열리기도 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후원회원만을 위한 음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초대, 후원회원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해 더 많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시민회관 새로운 문화공간 오픈

∴ 아트숍 재단장, 갤러리 창 개관

부산시민회관이 지난 4월 6일 새롭게 단장한 아트숍과 새로운 전시공간인 ‘갤러리 창’을 개관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박인건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박태성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장과 김윤일 부산광역시문화관광국 국장,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동석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정혜 부산대학교 조소과 교수, 조각가 변대용, 배선주 한슬미술공예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 개관 커팅식과 함께 새롭게 바뀐 아트숍과 갤러리 창을 둘러보았다.

소극장 1층 입구에 자리한 아트숍은 기존 막혀있던 공간을 띄어 개방함으로써 전시공간의 답답함을 없애는 한편, 누구나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아트상품을 전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극장 전면부 일부를 활용한 ‘갤러리 창’은 부산청년작가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된 2평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부산대학교 조소과 대학원에 다니는 이상원의 조각·설치작품 ‘OBSESSION-강박관념’이 개관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 5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5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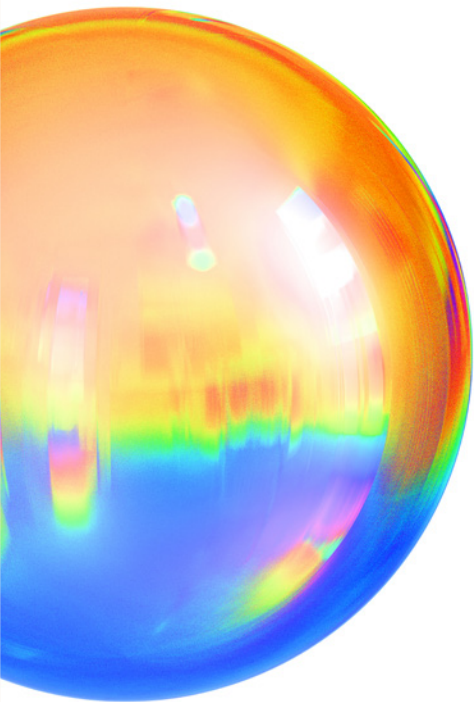
5월 1일(화) 09:30, 10:30 성서초등학교_국악관현악단 ‘민속놀이 한마당’
 5월 2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_합창단 ‘부산광역시청 로비콘서트’
 5월 5일(토) 11:20 119소방체험관_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날 특별공연’
 5월 5일(토) 15:00 아시아아드컨트리클럽_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날 특별공연’
 5월 8일(화) 10:00 부산시민회관_합창단 ‘어버이날 기념식’
 5월 8일(화) 11:50 삼성여고 강당_청소년교향악단 ‘꿈나무 소망 심기’
 5월 8일(화) 15:00 자매정신요양원_국악관현악단

5월 9일(수) 10:40 토현초등학교_교향악단
 5월 10일(목) 09:00 부산광역시청_합창단 ‘부산광역시 정례조례’
 5월 11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_교향악단 ‘부산시민회관 2018 트락축제’
 5월 15일(화) 13:40 53사단 대강당_합창단 ‘현역입영문화제’
 5월 15일(화) 14:00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_교향악단
 5월 15일(화) 16:00 해양대학교_교향악단
 5월 15일(화) 16:00 부산광역시청_합창단 ‘스승의 날 기념식’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종료]

2월 24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지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성악가들의 무대.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 '거장, 거장을 만나다' [종료]

3월 14일(수)-1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연주 : 주희성, 파스칼 드브이옹, 노경원, 김영호, 이미주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S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예약중]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예약중]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회 [종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5)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명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총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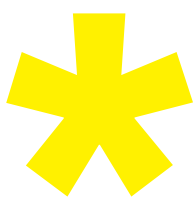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2018년 4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Busan Opera Week 2018

2018 부산오페라 Week 참가 지원 공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8 부산오페라 Week’참가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의 오페라 성장과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 오페라단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공연일자	공연준비(리허설)	공연장소	비고
오페라 전막	12월1일(토)~2일(일)	11월28일(수)~30일(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일 2회
오페라 인 콘서트	11월 27일(화)	11월 26일(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일 1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11월 30일(금)	11월 29일(목)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일 1회

선정 방향

부산오페라 발전에 기여할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 선정

지원자격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 오페라단
- 최근 5년 이내 전문공연장에서 오페라 관련 공연제작 및 실적이 있는 오페라단

지원내용

- 제작비 일부 지원
 - 오페라 전막(2일 2회 이상) : 9천만원 | 오페라 인 콘서트(1회) : 5천만원 | 오페라 갈라 콘서트(1회) : 3천만원
- 홍보지원 (통합 홍보 : TV-SPOT 제작 및 송출, 인쇄물 및 현수막)
- 공연별로 복수지원 가능하나 1개 단체 1개 부문 선정 ·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공연진행에 따른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은 별도 납부하여야 함
- ※2016 ~ 2017 부산오페라 Week에 선정된 단체는 동일부문 지원 불가

접수기간 및 방법

- 공지기간 : 2018년 4월 13일(금) ~ 5월 3일(목)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6일(목) ~ 5월 3일(목), 17:00까지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_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재)부산문화회관 2층 공연기획팀

제출서류

- 공통 제출 :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첨부파일 참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선택 제출 : 언론보도자료, 홍보인쇄물, 사진자료 등

결과발표

- 최종발표 : 2018년 5월 중(예정)
-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51-607-6051

※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게시판 참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구시립국악단



대금 배병민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최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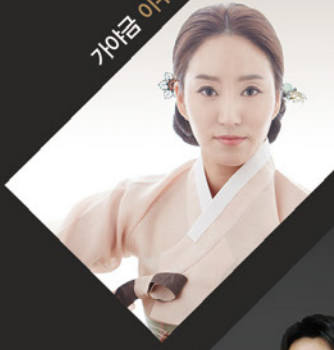


대구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이현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



가야금 이수연



사물놀이 최오성, 박재현
이주현, 최정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2018.05.15. THU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주 최 부산문화회관

주 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051.607.3124

1부 대구시립국악단 · 지휘 이현창

- 1 국악관현악 [고구려의 혼 Recomposed]
- 2 김동진류 대금산조 협주곡 [부활]
- 3 국악관현악과 성악 [박연폭포, 그라나다, 우정의 노래]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지휘 이정필

- 1 국악관현악 [대지 II]
- 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 3 경기도당굿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꿈같은 이야기

Scheherazad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F. Mendelssohn | Violin Concerto, Op.64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교향적 모음곡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Symphonic Suite, Op.35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로만 김

2018. 5.1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꼬등어의 상상력으로 일상에 감각을 입히다

DESIGN I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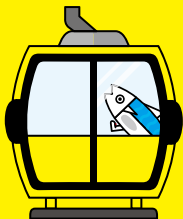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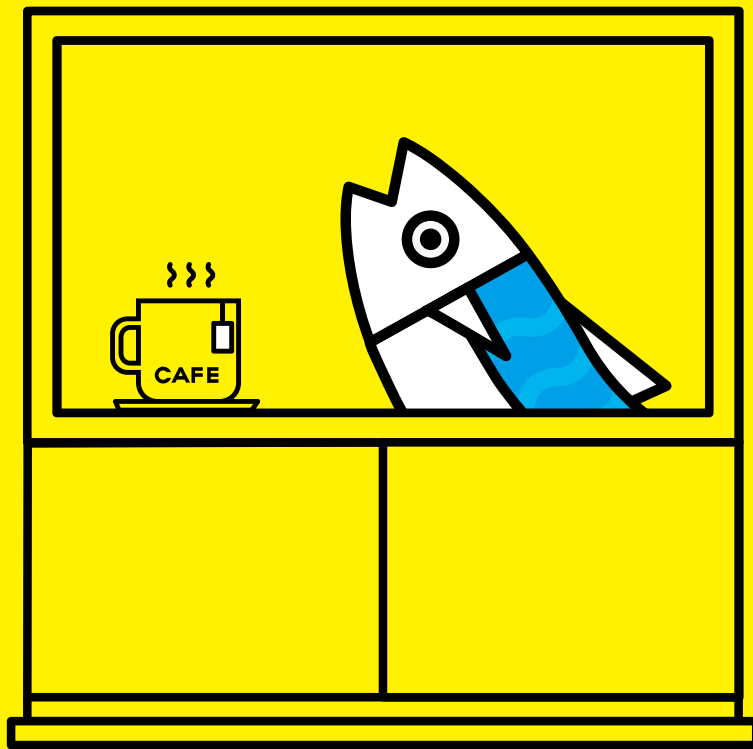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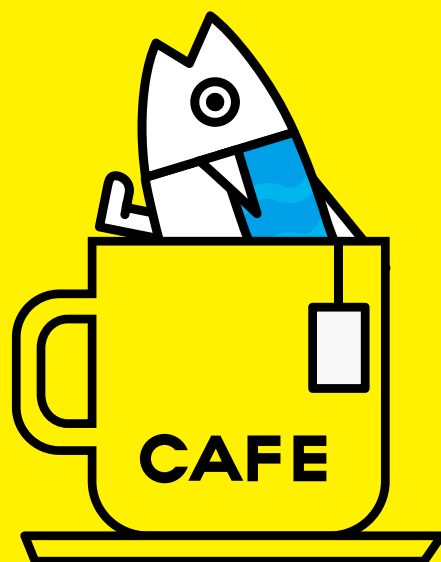
CAFE GGO DEUNG O

2018.05

GRAND O/P/E/N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매표소 내 꼬등어 카페 5월 오픈!



COMING SOON ◌

78th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DANCE UTOPIA

댄스 유토피아

“전통춤의 완전체, 댄스 유토피아!”



예술감독 김용철

2018.5.31 (Thu) - 6.1 (Fri) 19:30

부산문화회관 | 대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입장권 10,000원 문의 607-3121~2 예매처 www.bscc.or.kr

지휘 | 미하일 플레트네프

협연 | 에스더 유

“ONE OF THE WORLD'S TOP ORCHESTRAS”
— Gramophone
MIKHAIL PLETNEV & RUSSIAN NATIONAL ORCHESTRA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A. 글라주노프 모음곡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 J.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리단조, Op. 47 I. 스트라빈스키 불세

2018. 06. 27 WED PM 0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